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

- 弁辰瀆盧國을 중심으로 -

백 승 총

(부산대 교수)

目 次

- I. 머리말
- II. 변한의 성립과 독로국
 - 1. '한'의 분화와 진국·진왕
 - 2. 변·진한의 성립과 그 추이
 - 3. 변한 12국과 독로국
- III. 독로국의 위치비정
 - 1. 종래설의 검토
 - 2. 위치비정
- IV. 독로국과 부산 동래
 - 1. 동래의 지명
 - 2. 동래의 영현
 - 3. 동래의 치소
- V. 독로국의 사회성격
 - 1. 유적과 유물
 - 2. 독로국의 구조
- VI. 맺음말

I. 머리말

삼한시대¹⁾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다. 문헌 자료는 물론이고 고고 자료도 삼국시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대 시기 이 지역 지배층의 분묘로 주목되고 있는 동래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의 경우도 각각 4~5세기와 6~7세기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은 구석기시대 이래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신석기~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각기 계통을 달리하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삼한 이전의 이들 유적들은 부산의 지역 특성상 주로 강의 지류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로생활과 관련된 유물이 많고 특히 일본열도 등과의 대외교류도 활발했던 증거도 보인다.²⁾

부산 지역의 철기 문화는 기원전 2세기부터 보이는데, 점차 청동기 문화를 대체해 가다가 기원 전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보급·확산된다. 이 시기가 되면 종래의 지석묘·무문토기·마제석기를 대신하여 목관묘·와질토기·철제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대외교섭의 대상도 확대되어 중국·북방·백제지역·왜 등 여러 계통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 1) 삼한시대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 전 3세기~기원 후 3세기까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헌적으로는 1~3세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차이는 각기 물질자료와 문헌자료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철기문화의 전래와 보급'을 후자는 중국 문헌에 보이는 '중[진]국'과 '(삼)한' 용례의 출현 시기를 크게 참고한 것이다(李熙濬,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43, 2001, 131쪽). 물론 삼한 가운데에서도 마한이 변·진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등장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정도라든지 정치집단의 출현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의 성숙과정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기원 전후한 시기를 전대와는 구분되는 사회발전의 획기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한시대를 일단 기원 후 1~3세기를 중심으로 상정하되, 그 성립은 고고학의 견해를 참고하여 한국식동검과 점토대토기문화가 출현하는 기원 전 3세기까지 넓혀본다(安在皓·洪潛植,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研究-並行關係를 中心으로-」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144쪽).
- 2) 삼한시대 이전의 부산의 선사문화에 대해서는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에서 발행한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1997)과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에서 『釜山の 先史文化』라는 특집호로 발행한 『港都釜山』17(2001)의 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또한 청동기시대 이래 보이기 시작한 ‘지역 단위의 정치집단’(=국)이 보다 광역화되는데,³⁾ 특히 분묘 유적의 경우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 등 동래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집중화 현상은 삼한시대에 이어 삼국시대까지 이어진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서에는 부산 지역의 고대 정치체(혹은 지역 명칭)로서 居柒山國·菴山國·萊山國·蓬萊縣 등이 보이고 있다. 후술할 바와 같이 모두 변한 12국 가운데 1국인 ‘독로국’의 異稱으로서 동일 정치체(혹은 지역)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대 시기 부산지역의 정치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는데, 기존의 연구도 삼국시대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즉 고고학 방면에서는, 동래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인근의 김해 가락국과 신라의 세력 관계를 정리한 연구⁴⁾와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⁵⁾가 있다. 문헌 방면에서는, 지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동래 복천동 고분군 피장자 집단의 신라 편입 과정을 다룬 연구⁶⁾가 있다. 삼한시대 이 지역의 정치체 및 그 성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변·진한에 대한 문헌·고고자료 검토에서 일부 언급하거나,⁷⁾ 독로국과 구야국의 상관성에 주목한

3) 고고 자료로 볼 때 부산지역에서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가서도 강력한 정치체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그 성립의 기초는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영남, 「釜山の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17,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319쪽).

4) 申敬澈,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の 釜山-考古學的 考察-」, 『釜山市史』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383~434쪽; 「삼국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釜山廣域市 東萊區, 1995, 182~243쪽.

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1996.

6) 金廷鶴, 「釜山과 加耶文化」, 『박물관연구논집』1, 부산시립박물관, 1992; 朱甫噉,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의 向方」,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7.

7) 李賢惠, 「辰·弁韓地域 諸小國의 形成」,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48~102쪽; 白承忠, 「弁韓의 成立과 發展-弁辰狗邪國의 성격과 관련하여-」, 『三韓의 社會와

논고⁸⁾가 있을 뿐이다. 문헌 방면의 연구는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부산 동래설이 유력하지만 관련 자료가 워낙 영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힘든 형편이다.⁹⁾

본고에서는 삼한시대 부산 지역의 유력한 정치체로 추정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변진독로국'(이하 '독로국'이라고 한다)의 출현과정과 그 사회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삼한시대 당시 '독로국'을 하나의 지역적·정치적·문화적 범주로 포괄하였던 변한의 성립과정과 진국·진한 등의 정치체의 성격을 살펴보고, 청동기시대 후기이래 이 지역에서 유력한 정치체가 등장하는 과정을 추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독로국의 위치에 대한 기존 설의 논거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독로국=부산 동래설'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펴려고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로국의 사회성격을 이 지역의 지리 조건과 고고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대외 교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무리한 추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배 제현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文化』, 韓國古代史研究10, 1995; 李盛周, 『新羅·伽倻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1998; 권오영, 「『三國志』 弁·辰韓 기사와 고고자료의 비교검토」, 『弁·辰韓의 世界』, 제2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학술발표대회,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1998.

- 8) 申敬澈,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金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19, 1995;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申敬澈·金宰佑, 『金海大成洞古墳群Ⅰ』,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Ⅱ』,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홍보식, 「금관가야(金官加耶)의 성립과 발전」, 『加耶文化遺蹟調査 및 整備計劃』, 경상북도·가야대학교 부설 가야문화연구소, 1998; 「考古學으로 본 金官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2000.
- 9) '독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종래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8, 1970, 64~71쪽; 『加羅史研究』, 혜안, 2000, 319~321쪽; 「三韓時代의 釜山」, 『釜山市史』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451~453쪽; 沈奉謹, 「巨濟 古縣城址 研究」, 『石堂論叢』17,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1, 30~35쪽.

II. 변한의 성립과 독로국

1. ‘한’의 분화와 진국·진왕

한 사회에서 ‘지역 단위의 정치집단’(=국)이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三)韓’ 및 ‘辰國’의 등장 시점과 관련이 깊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한’은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에게 쫓겨나 ‘韓地’로 남하하여 자칭 ‘韓王’이 된 조선왕 준 때부터 확인된다. 이후 진한은 ‘秦役’을 피해온 유이민 집단이 마한으로부터 동쪽 땅을 할양 받음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진한 성립 당시 마한이 선 주 세력으로서 진한과는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물론 진한의 출자는 진·조선·낙랑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¹¹⁾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조선·낙랑 각 정치체의 존속 시기가 거의 연속해 있고 이 기간 동안 북방으로부터의 유이민의 남하가 부단하게 전개되었음을 감안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하다. 즉 기원 전 3세기 후반 진역(혹은 ‘진난’)을 피하여 남하한 일군의 유이민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곧바로 진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만조선 땅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위만조선이 멸망(기원 전 108년)하고 한군현이 설치됨에 따라 유이민화 하여 일부는 남고 일부는 남하하여 마한을 거쳐 진한에 정착한 것이다. 또한 ‘진한은 옛 진국’이라는 기록을 중시한다면, 위만조선 멸망 이전에 남부지역에는 ‘진국’이 있었는데 남하한 유이민 세력과 함께 진한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러나 진한의 출자를 위만조선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

10) 경산 임당동·경주 사라리·창원 다호리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동검·철검의 칼집 형태 분석을 통해, 변·진한의 출자는 마한과는 달리 비한계로서 위만조선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권오영, 앞 글, 1998, 3~4쪽).

11) 『三國志』권30, 「魏書」東夷傳 韓條,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始祖赫居世居西干 38년조.

히 남아 있다. 즉 ‘한’과 거의 같은 시기에 보이고 있고, 또한 ‘진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술된 ‘眞番旁辰〔衆〕國’ 기사의 ‘辰〔衆〕國’(이하 ‘진국’이라고 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진왕’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정리된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진국’ 관련 기사는 주로 준왕 남하 이후 위만조선 멸망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이는데, ‘한’ 보다는 조금 늦게 나온다.

‘진국’이 진한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후한서』의 기술처럼 삼한 전체를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위만조선이 존속했던 기원 전 2세기 동안 ‘韓地’에 실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한’과 ‘진국’의 상호관계에 관한 근래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다. 즉 ‘한’은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진국’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에 각각 별도로 존재한 정치체로 본 견해¹²⁾와 ‘진국’을 삼한 이전의 한 지역에 형성된 정치체로서 마한으로 계승된 것으로 본 견해¹³⁾가 그것이다.

‘한’과 ‘진국’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진국의 성립 시기, 위치, 이동의 가능성 등 제 조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룰 여유는 없는데, 다만 거의 동일한 시기에 존재하면서도 각각 별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과 ‘진국’은 일단 구분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른 시기의 진국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한은 옛 진국이다’라고 말하는 점을 참고하여 ‘진국’의 실체 내지 그 역사성을 ‘진왕’ 및 ‘진한’의 성립에서부터 찾아 조금씩 추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¹⁴⁾

12)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45~49쪽.

13)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6, 43쪽.

14) ‘진국’ 관련 기록이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진국의 소멸과 그 이동에 의한 진한의 성립 가능성을 한층 높혀 주고 있다. 위만조선인인 역계경의 남하 기사에서도 진국→진한으로의 계승성은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 다만 『위략』 편찬 때의 진한의 위치를 고려하여 ‘동쪽’으로 갔다고 표현한 것이다(백승충, 「문헌에서 본 가

이와 관련하여 진왕과 진국, 진왕과 진한, 진국과 진한 각각의 상호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왕’은 『삼국지』에서는 마한 54국의 왕으로 나오고, 『후한서』에 의하면 삼한 전체를 다스리는 총왕으로 나온다. 두 사서에서는 ‘진왕’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진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두 사서에서 진국과 진국에 대한 인식이 연동하여 기술되고 있다는 것은, 진국과 진왕이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는 마한조의 ‘진왕’과 진한조의 ‘진한’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¹⁵⁾ 마한조의 목지국 ‘진왕’과 진한조의 ‘진왕’의 관계에 대하여 ‘진왕’을 모두 목지국의 진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한데, 일관성 있는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진왕이 마한의 목지국을 다스린다는 점, 마한인이 진왕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진왕이 자립하여 왕이 되지 못한다는 점 등 ‘진왕’을 주체로 한 상이한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¹⁶⁾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논자들은 진왕에 속한 12국을 변한으로 보고, 이 때의 진왕도 목지국의 진왕이므로 변한은 마한의 통제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위략』에 근거해 볼 때 적어도 유이민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 있어서 마한의 통제를 받는 것은 변한이 아니라 진한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변·진한 24국 가운데 ‘其十二國屬辰王’ 기사에 이어 ‘十二國亦有王’이라고 하여 변한 12국왕의 실체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마한의 진왕과는 별도

야·삼국과 왜,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235쪽).

15) 『三國志』권30, 「魏書」東夷傳 韓條, “辰王治目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16) ‘진왕’을 보통명사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이도학,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目支國研究의 現段階」,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123쪽).

로 진한에도 진(한)왕이 존재하고, 여기에 진한 12국이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위만조선 멸망과 한사군 설치를 전후하여 '진국'의 소멸과 삼한의 성립이 있었고, 이후 삼한 각각을 통할하는 연맹장적 성격의 지배자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마한에는 목지국 출신으로서 전체를 다스리는 '진왕'이 있고, 진한에도 비록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12국이 소속된 '진(한)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한과 진한에서 '진왕'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대 '진국'의 전통이 부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한인으로서 진한의 왕을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변한에도 왕(들)이 존재하는데, 변한 12국 전체를 통할하는 연맹장 즉 '변한왕'은 아니지만 대국¹⁸⁾이 중심이 된 '지역연맹장'의 성격을 가진 복수의 왕(大臣智-필자주) 정도는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2. 변·진한의 성립과 그 추이

삼한 가운데 변한은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발전했을까? 『삼국지』

-
- 17) 근래 '其十二國屬辰王'의 '진왕'을 목지국의 진왕으로 보면 그에 속한 12국은 진한 12국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되는데(윤용구, 「『三國志』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107쪽), 진왕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12국을 '진한 12국'으로 본 것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18) '대국'과 '소국'은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언급한대로 전체 78 여 국을 그 규모와 지배자의 명칭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 '구야국'과 '안야국'은 국 지배자의 최고 명칭인 '진지'를 우대하여 부르는 4국 속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대국'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19) '十二國亦有王'의 '왕'을 변한의 총왕으로 보느냐 아니면 12국 각각의 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국인 구야국과 안야국 중심의 '지역연맹장'('大臣智'-필자주)의 성격을 가진 '복수의 왕'이 존재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삼국지』 한전에서 '진왕'을 제외하면 총왕으로 언급한 예가 없어 단일의 왕을 상정하기가 곤란하고, 반대로 12국 각각에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식상으로 '十二國各亦有王'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박순발 외 5인,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255쪽 토론요지 참조).

「위서」동이전 한조 첫머리에는 삼한을 세 종족으로 말하고 있고, 지역적 기반도 각각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마한이 선주민이고 진한은 유이민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변한의 성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다만 이 문제는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당시의 삼한의 형세를 감안한 진한 위주의 역사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즉 '진한'을 전제로 한 '변진'의 용어이라든지 진한인의 편두 기술 등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후 『진서』에서는 진한전 속에 변한을 포함시키고 있다든지 변한 기사를 진한 기사로 바꾸어 서술하기까지 한다.²⁰⁾ 따라서 변·진한의 구별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찬자는 진한의 출자만 언급하고 변한의 출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삼국지』 당시의 이러한 인식상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변한이 진한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출자를 가졌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변·진한이 잡거하고 의복·주택·언어·습속 등에서 동질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변한도 진한과 마찬가지로 북방에서 남하한 이주민으로서 원래는 진한과 한 갈래였을 것인데, 마한 동쪽 땅을 할양 받아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진한으로 분화되어 각각의 영역을 가지면서 24국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정착 이후의 변·진한은 정치적으로는 엄격히 구분되었을 것인데, 종족의 차이·지역 근거지의 차이·제사지내는 대상의 차이·대외교역상의 대표성의 차이 등이 그것일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비록 문화적으로는 양자가 뚜렷한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기반을 가지면서 '(지역)연맹장'이 통할하는 별도의 정치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3세기 전반의 변한과 진한은 대외적으로 구분되고 있음은 분명한데, 문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분화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

20) 백승충, 앞 글, 1998, 237쪽.

되는 것이 1세기 초의 사실로 전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위략』의 ‘염사치 설화’이다. 염사치가 가지고 있던 ‘辰韓 右渠帥’라는 칭호와 ‘牟[弁]韓布’의 용례를 통해 볼 때, 1세기 초 한 사회는 이미 삼한으로 분화되었음은 물론 변한과 진한이 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이 기록도 진한의 입장에서 서술한 까닭에 변한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종래 막연히 ‘한지’ 혹은 ‘한국’으로 통칭되던 것이 위만조선 멸망 이후 유이민 남하와 한군현과의 교섭 등 북방지역과의 접촉을 계기로 ‘삼한’으로 분화되고 있는 점은 확실히 전대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렇게 보면 변한도 진한과 마찬가지로 위만조선 멸망을 전후 해 북방으로부터 남하한 유이민에 의해 성립했음은 분명하다. 물론 그 이전에 준왕과 조선상 역계경의 남하 등 유이민 파동이 있기는 하였지만, 특히 위만조선의 멸망에 이은 한사군의 설치에 변·진한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남해안 및 낙동강하류에 위치했던 변한 소속의 일부 소국은 이를 계기로 한군현 및 왜와 본격적으로 접촉하는 등 인적·물적 대외교류관계를 확대하였을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이는 바 김해 가락국 개국기의 수로왕, 허황후, 석탈해의 도래 등은 변한 지역의 그러한 예에 속할 것인데, 철기문화와 중국 한문화 등 북방 선진 문물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후 환영제 말기 즉 2세기 후반 지방군벌의 대두에 이어 삼국의 항쟁 등 중국이 혼란기를 겪는 와중에 韓·濊 강성에 의한 또 한 차례의

21) 다만 ‘廉斯’라는 동일 지역 출신으로 廉斯繼 보다 20년 뒤에 낙랑에 나아가 공물을 바치고 있는 廉斯人 蘇馬諶의 경우 단지 ‘韓人’으로 나오고 있어(『後漢書』 권85, 東夷列傳 75 韓條), 약간의 혼란을 일으킨다. 즉 이 때의 ‘한’을 삼한 전체로 본다면 1세기 전반에는 삼한의 분화를 상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만약 이 때의 ‘한’을 삼한의 대표 세력인 마한으로 본다면 ‘廉斯’는 본질적으로 변한과 무관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삼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으로 통칭해 보려는 편찬자의 서술상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염사치’ 기사에서는 분명히 ‘辰韓人’과 ‘牟[弁]韓布’ 등 삼한의 분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유이민 파동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3세기 초 公孫康이 대방군을 설치하여 韓·倭를 복속시키고, 景初 연간에는 明帝가 두 군을 평정하고 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을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한 지역의 정치적 성장에 대하여 이를 통제하려는 한군현과의 갈등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후 관구검의 고구려·옥저 침공과 함께 진행된 '진한 8국'의 낙랑군 귀속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종래 '대외교역'의 거점이었던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대외교역권' 내지는 '대외교역루트'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두 군은 한을 떨하는데, 조위는 동이족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수익의 증대를 위해 교역과정에서 중간과정을 배제하는 등 중앙관리의 과정을 통해 직접 감독하는데, 다수 토착인에 대한 관작 수여도 빈번하게 행한다.²²⁾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2세기 말 이후 한반도 남부는 '한'의 성장과 군현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3세기 후반부터는 변한과 왜가 배제된 채 마한과 진한만이 西晉 본국과 직접 통교하는 등 교역체제도 본질적으로 변화한다.²³⁾ 이것은 한반도의 대중국 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던 군현의 기능이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는데, 3세기 이후 변한에서 전세품을 제외하고는 한군현계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3세기 후반 남부지방의 교역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변한,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 그리고 왜 등 3자간의 교류관계가 빈번하게 전개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²⁴⁾ 이 같은 교섭관계가

22) 윤용구, 앞 글, 1998, 95쪽.

23) 『三國志』권4, 「魏書」4, 三小帝紀4, 陳留王奐 景元 2년(261)조, “秋七月 樂浪外夷韓濊貊 各率其屬來朝貢.” 및 『晉書』권97, 列傳67 東夷傳 馬韓·辰韓條 참조. 물론 이 때의 마한과 진한은 전대와는 다른 정치체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특히 마한의 경우 백제국이 주목되는 속에서 다양한 대·소 정치세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 研究』, 忠南大學校 出版部, 1998, 203~213쪽 참조.

24) 申敬澈, 「古代의 洛東江, 榮山江, 그리고 倭」 『韓國의 前方後圓墳』, 忠南대학교 출판부,

본격화되는 것은 변한과 왜가 군현 내지는 본국과의 통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중국 사서에도 사라지는 260년대의 西晉 때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부터 변한과 진한은 사실상 별개의 정치체로서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그 향유하는 문화적 성격도 달라하여 나타난다고 하겠다.

3. 변한 12국과 독로국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에 의하면, 독로국은 변한 12국 가운데 1국으로서 김해 구야국과 함께 왜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①(韓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첫째는 馬韓이고 둘째는 辰韓이고 셋째는 弁韓이다. 辰韓은 옛 辰國이다.

②(辰韓은) 처음에는 6國이던 것이 차츰 12國으로 나뉘어졌다. 弁辰도 12國으로 되어 있다…已柢國·不斯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弁辰瀆盧國·斯盧國…弁·辰韓 합하여 24國이다. 大國은 4~5천가, 小國은 6~7백가, 총 4~5만 호이다.

③그 중에서 瀆盧國은 (바다를 격해) 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변·진한은 각각 12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족적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A-①), 그러면서도 24국명은 섞어 함께 열거하고 있다(A-②). 국명 앞에 붙은 ‘弁(辰)’ 字의 유무에 따라 변·진한을 구분하는 관례에 따른다면 ‘변진독로국’은 변한에 속했음을 알 수 있고, ‘구야한국’의 용례를 참고해 본다면 원래의 국명은 ‘독로한국’일 것이다. 24국명을 열

2000, 184쪽. 특히 초기 須惠器를 통해 볼 때 영산강유역도 낙동강하류의 김해를 정점으로 한 정치연합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적 공유관계가 고도의 정치적인 밀접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간 차원의 물적·인적 교류관계의 산물인지는 향후 세밀한 검토를 요하는데, 일단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교류관계를 상정할 필요는 있다.

거하는 가운데 구야국·주조마국·안야국·독로국·사로국 등은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고(A-②), 독로국은 왜와 가깝다고 하였다(A-③). 국명의 나열 순서가 각 소국의 위치를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면,²⁵⁾ 독로국은 일단 서쪽으로는 김해 구야국 및 함안 안야국 가까이에 있고 동·남쪽으로는 각각 사로국과 왜와 통하기 쉬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변한에는 대국인 구야국과 안라국을 중심으로 지역연맹장의 성격을 가진 복수의 왕이 존재했음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독로국은 느슨하나마 인접해 있는 구야국의 통할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서 변·진한은 종족이 다르고 제사 지낼 때 차이가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자면, 양자는 비록 문화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지역적 기반을 달리하면서 각각의 소속 국의 '公立'에 의해 추대된 정치권력 즉 '지역연맹장(=왕)'이 주도하는 '공동제의권' 상으로는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鬼道'로서 제국을 다스리는 등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동시에 정치적 연맹장인 왜 邪馬臺國의 '卑彌呼'의 성격²⁶⁾을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진한에서는 '진(한)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다만 변한에서는 대국인 구야국과 안야국의 신지 등 복수의 지역연맹장(=왕, 대신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제의권'도 복수로 존재했을 것이다.

독로국의 경우, 후술할 바와 같이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철을 중심으로 한 대외교역을 통해 변한의 주요 소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大國'인 '구야국'과 '안야국'과 비교해 볼 때 독로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로국은 관문으로서의 입지조건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두 국과는 달리 내륙과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25) 千寛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 1976;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60~61쪽.

26) 山尾幸久, 「初期ヤマト政權の史的特質」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1983, 74~112쪽.

양호한 농경지를 제공하는 낙동강 하류유역에서는 비껴나 있고, 또한 주위는 큰산으로 막혀 있어 정치적·군사적으로 주변 제 지역으로 뻗어나갈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입지조건상의 약점이 있다. 특히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삼국시대에 들어서도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삼한시대의 독로국은 변한 소속의 일 국으로서, 신라의 팽창 이전에는 ‘국’으로서의 독자적인 발전을 피하기는 하지만 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김해 구야국을 정점으로 한 ‘공동제의권’적 성격의 ‘김해 지역연맹체’의 범주에 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변한의 성립과 그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변한은 진한과 같은 갈래로서 그 성립은 진 피역인의 남하 이래 위만조선의 멸망에 이르는 북방으로부터의 일련의 유이민 집단의 남하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삼한 시기 동안 변·진한은 비록 문화적·경제적으로는 동질성을 보이지만, 한군현과의 접촉을 계기로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대외적으로는 분화되었다. 이것이 3세기 후반 서진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적으로도 별개로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변한 12국의 하나인 독로국은 독자적인 성장을 하는 한편 대국인 김해의 구야국의 주도하는 ‘공동제의권’에 포함되었다.

Ⅲ. 독로국의 위치비정

『삼국지』 한조에는 독로국은 (바다를 격해)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조 서두에 韓의 남쪽이 왜와 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별도로 독로국을 다시 거명한 것인데, 그 이유는 독로국이 한 제국 가운데 왜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물적·인적 교류가 빈번했기 때문일 것이다. 독로국은 지금의 ‘부산 동래’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일찍이 ‘경남 거제도’와 ‘부산 다대포’에 비정

한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 대한 제설을 소개하고,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종래설의 검토

1) 거제도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이 그의 저서 『疆域考』의 「三韓總考」와 「弁辰別考」에서 주장한 것이다. 즉 “독로국은 지금의 거제부이다(본래는 裳郡이다. 裳은 우리말로 ‘두루기’로서 독로와 음이 가깝다)”²⁷⁾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거제도설을 제기하였다. ‘독로’와 거제도의 옛 이름인 ‘裳’의 우리말 ‘두루기(tu-ru-ki)’가 음통함을 근거로 독로국=거제도설을 주장한 것인데, 그 방증으로 거제도에는 加羅山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이곳이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고 언급한 점을 들고 있다.²⁸⁾

이후 鮎貝房之進의 지지가 있었고, 末松保和는 별도의 논증을 덧붙임으로써 이 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즉 거제도는 北部 裳(巨濟)郡, 東部 巨老(鵝洲)縣, 西部 買珍伊(溟珍)縣, 南部 松邊(南垂)縣 등 4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상’(=두루기) 이외에 서부의 ‘매진이현’에도 보인다고 하였다. 즉 買珍伊(溟珍)의 ‘珍伊’는 우리말로 ‘tar-i’, ‘tor-i’, ‘tur-i’이기 때문에 ‘독로’와 음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제도 東岸의 知世浦는 대마도에 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다가 배를 띄우는 곳이고, 섬 중앙의 加羅山에서는 대마도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⁹⁾

근래에는 심봉근의 지지가 있었다. 즉 거제도에 독로국의 중심지와

27) 『與猶堂全書』6, 疆域考1 「三韓總考」, “鋪案瀆盧國者今之巨濟府也(本裳郡方言裳曰斗婁技與瀆盧聲近).”

28) 위 책, 疆域考2 「弁辰別考」, “瀆盧者巨濟也(已見前)雖與金官隔以海口瀆盧南與倭接恐非他邑也(巨濟有加羅山勝覽云望對馬島最近).”

2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61, 66~67쪽.

삼한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독로국’의 ‘독’은 상고음에서 ‘도’나 ‘두’로 발음되어 동래와는 무관하고 또한 동래에는 처음부터 거칠산국 등이 엄연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독로국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신 정다산 이래의 어문학적 성과와 각종 지리지의 거제도과 왜 관계 기록을 참고하여 거제도설을 지지하였는데, 조선시대의 거제군 동헌건물인 岐城館 客舍上樑文에 보이는 ‘瀆盧故都’와 ‘上古之豆盧建國’ 글귀를 방증자료로 보완하였다.³⁰⁾

2) 부산 다대포설

부산 다대포설은 吉田東伍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변한 12국을 열거하면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其瀆盧國 與倭接界’의 독로국을 ‘瀆盧津’이라고 하였다. 『삼국지』에서 ‘독로국’을 ‘任那多羅’로 본 것은 잘못된데, 그 이유로 ‘다라’는 산간지역으로 왜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辨辰瀆羅’는 ‘다라가야’로서 합천군에 비정되고, ‘독로진’은 동래부 다대포(현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에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鼎立考』를 인용하면서 독로국은 ‘喙國’이라고도 하였다.³¹⁾ 이후 那珂通世와 李丙燾는 거제도설과 다대포설을 소개한 뒤, 별다른 고증 없이 다대포설을 그대로 따랐다.³²⁾

3) 부산 동래설

丁仲煥은 기존의 거제도설과 부산 다대포설을 모두 비판하고, 새로운 설로서 독로국을 옛 동래부의 치소가 있었던 ‘동래읍’(현 부산시 동래구

30) 沈奉謹, 앞 글, 1991, 30~35쪽. 물론 거제의 향토사학자들도 이들 논거를 그대로 수용하여 거제도설을 지지하고 있다(李承哲, 「三韓時代 瀆盧國의 王都地는 巨濟였다」 『慶南郷土史論叢』, 慶南郷土史研究協議會, 1992, 163~166쪽).

31)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977(復刻板), 141~144쪽.

32) 那珂通世, 「三韓考」 『外交釋史』2, 岩波書店, 1958;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297쪽.

명륜동)에 비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독로’는 ‘瀆의 나라’라는 말인데 수영강의 지류가 합류하는 동래 주변에는 濁流가 범람하여 ‘溝瀆’이 되었을 것이고, ‘독로’를 음독하면 ‘동내’ 또는 ‘동래’가 되어 그 美稱으로 ‘東萊’가 쓰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동래는 한군현·왜 교섭의 요충지로서 ‘철’을 매개로 한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동래에는 삼한·삼국시대에 걸쳐 동래 패총·복천동 고분군·연산동 고분군·연산동 토성지 등 큰 유적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넷째, 동래패총에서 제철시설이 확인되었고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철소재인 철정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³³⁾ 이후 대부분의 문헌 연구자들과 고고학 연구자들은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³⁴⁾

2. 위치비정

지리적 조건이나 역사적 추이로 볼 때 이들 세 설 모두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음운상으로는 거제도설이 고고 자료상으로는 부산 동래설이 각각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는 몇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따른다. ①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왜와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②어원적으로 ‘독로국’과 상통해야 한다. ③삼한시대의 ‘국’이 존재할만한 유적·유물이 있어야 한다. ④김해 구야국과 정치적·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⑤철 생산과 유통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⑥교통상의 요충지로서 바다를 통해 왜 뿐만 아니라 동해안쪽으로 진한·예와도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한다.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는 중요도의 경중을 떠나 이

33) 丁仲煥, 앞 글, 1970, 64~71쪽; 앞 책, 2000, 319~321쪽.

34) 金廷鶴, 『任那と日本』, 日本の歴史 別卷1, 小學館, 1977, 37쪽; 千寛宇, 앞 책, 1991, 65~67쪽; 申敬澈, 「原三國(三韓)時代の 釜山」『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신문사, 1992, 98~101쪽.

들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산 동래설만이 이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로국=부산 동래설’에 가담하면서 다대포설과 거제도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부산 동래설의 경우도 기존의 논증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다대포설이다. 세 설 가운데 그 논거가 가장 미흡하다고 하겠다. 이미 정중환의 비판이 있었듯이, 吉田東伍가 ‘독로국’을 언급하면서 함께 거명한 ‘瀆盧津’과 ‘辨辰瀆羅’는 사료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정체 불명의 조작된 지명으로서,³⁵⁾ 애초부터 논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위서』 「동이전」에서 독로국을 ‘임나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삼국지』에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아마 ‘나라’와 ‘독로’의 음상사에 근거하여 임의로 판단한 듯하다. 독로국을 ‘다대포’로 비정한 것에는 『訓蒙字會』에 ‘독’은 ‘두’로도 발음된다는 점,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 그리고 『일본서기』에 몇 차례 보이는 바 다대포에 비정되는 ‘多多羅(=踏鞴津)’의 존재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³⁶⁾ 고증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다대포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한 점은 타당하다고 하겠는데, 그러나 『일본서기』의 ‘多多羅(=踏鞴津)’의 위치 비정과 존속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다라’의 용례는 『일본서기』에 毛麻利叱智(=박제상) 때의 왜 습진언의 ‘草羅城’ 함락기사³⁷⁾와 신라 上臣 伊叱夫禮智干岐(=異斯夫)의 김해 가락국(=南加羅) 4村 抄掠 기사³⁸⁾에 보인다. 각각 踏鞴津과 多多

35) 丁仲煥, 앞 글, 1970, 61쪽; 앞 책, 2000, 311~312쪽.

36) 다만 음상사에 근거하여 ‘독로국’을 『日本書紀』권9, 神功紀 섭정 49년 춘3월조에 보이는 ‘喙國’과 연결시킨 것은 특이한데, 이후 탁국은 경산으로 비정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영산~밀양설이 우세하다. 이 문제는 본고의 주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37) 『日本書紀』권9, 神功紀 섭정 5년 춘3월조.

38) 『日本書紀』권17, 繼體紀 23년 하4월 是月條.

羅(原)으로 나오는데, ‘踏鞴’는 음가가 ‘タタラ’로서 ‘다다라’와 동일 지역임을 알 수 있다.³⁹⁾ 이 곳이 김해와 가깝다든지 함께 보이는 ‘草羅’(サワラ, =‘畝良’, ‘匠羅’)가 현재의 양산으로 비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면서 어원적으로도 상통하는 지금의 ‘부산 다대포’에 비정하는 것도 그리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⁴⁰⁾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래 ‘다다라’를 다대포가 아닌 동래로 비정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그 근거로는 동래는 수영천이 관통하고 넓은 평야와 양항인 수영만이 있어 津이나 原에 부합하고, 삼국시대의 고총 고분이 존재하며, ‘풀무’를 가리키는 ‘다다라(タタラ)’는 철 제련지인 이 곳에서 유래한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고 한다.⁴¹⁾ 문헌뿐만 아니라 고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을 철 생산과 관련지은 것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철 제련 및 철기제작을 위해서는 철광산 개발 및 사철 채취가 가능해야 하고 풍부한 용수와 산림 목재가 필요한데, 동래는 수영강의 결절지에 입지하면서 이 지역 교통로와 경제권의 중심에 있는 등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다다라의 위치 비정에 대한 위의 두 설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동래설의 경우 다음 몇 가지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① ‘다다라’는 낙동강하구에 위치하면서 김해·양산과 직접 연결되는 교통로상의 요지에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신라의 가락국 진출(532) 무렵에는 이미 신라에 편입되어 외곽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독자적인 정치력과

39) ‘多羅’(=합천)가 신라에 편입된 이후 ‘大良’으로 개칭되는 점에 주목하여 ‘多’와 ‘大’는 통한다는 견해도 있다(鮎貝房之進, 『雜攷』7(上), 朝鮮印刷株式會社, 1937, 130쪽).

40) ‘多多羅’를 부산 다대포에 비정한 논고로는 鮎貝房之進, 앞 책, 1937, 130쪽;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吉川弘文館, 1962, 85쪽; 坂本太郎 等 校注,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65, 41쪽 등이 있는데, 물론 ‘독로국’의 위치 비정과는 관계 없이 단순히 음상사만을 참고한 것이다.

41) 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1983, 27~29쪽.

군사력은 보유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지조건상으로는 ‘津’과 ‘原’이 있는 양항의 조건만 갖추면 충분하며, 반드시 고층 고분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② 『삼국사기』·『삼국유사』·『일본서기』 등의 사서에 의하면, ‘畝良’(=양산)은 박제상 때 신라 변방의 군사·교통상의 요충지로서 5세기 이후 왜의 침입이 잦았던 곳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의 진해와 용원 사이에 있는 ‘熊川’⁴²⁾은 6세기 전반 한일교류상의 요충지로 등장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이들 지역과 바로 이웃한 ‘다대포’도 군사·교통상의 중요성을 가졌을 것은 자명한데, 왜와 신라가 각각 양산과 김해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군사 시위를 하기에는 적합한 군사 요충지라고 하겠다. ③ ‘풀무’를 뜻하는 ‘다다라’라는 지명도 철 산지인 동래와 관련이 깊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 지명도 삼국시대의 다대포가 동래 거칠산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 곳에도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살았음은 물론 인근 지역과 교류했던 흔적도 보이는데,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다대동 패총에서 출토된 일본열도산 흑요석제 剝片⁴³⁾이라든지 응봉 봉수대가 있었던 아미산의 토성터에서 발견된 다수의 신라 토기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삼국시대의 ‘다다라’는 거칠산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다대포로 비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대포가 치소인 동래 외곽에 있으면서도 5~6세기 군사·교통상의 요충지로 등장하는 것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관계로 왜→신라 혹은 신라→가야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전의 삼한시대인데, 현재까지로는 문헌 및 고고 자료상의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대포=독로국설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겠다.

42) 『日本書紀』권17, 繼體紀 23년 하4월 是月條. ‘一本’에 異說로 ‘久斯牟羅’로 나오는데, 이 곳 역시 웅천 인근의 창원으로 비정되는 등 모두 ‘탁순국’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세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43) 金龍基, 「多大浦貝塚 發掘調査報告」 『釜大史學』2, 1971, 127쪽.

둘째, 거제도설이다. 거제도설은 위에서 제시한 지명비정의 조건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만족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 조건은 전혀 만족시킬 수 없다. 이설은 주로 거제도의 옛 이름인 ‘裳’ 즉 ‘두루기’와 ‘독로’의 음상사, 바다와 접해 있고 왜와 가까이에 있는 지리적 입지조건, 그리고 각종 지리지류에 보이는 가야 관련 지명과 왜 관계 기사 등에 근거하고 있다. 아직도 유력한 설로서, 고증에 밝은 정다산의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裳’은 치마를 뜻하는 우리말 ‘두루기’로서 ‘독로’와 음통한다는 점은 일찍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⁴⁴⁾ 또한 비록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거제도가 왜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관계로 沙島・溟珍廢縣(=買珍伊縣)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加羅山은 대마도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고, 知世浦營은 일본으로 가는 배를 띄우는 곳이라고 하였다.⁴⁵⁾ 실제 거제도와 가까운 舍浦(마산 부근)는 고려 때 여·몽연합군의 1·2차 일본원정의 출발지이기도 하였다.⁴⁶⁾ 따라서 이들 조건만으로 본다면 삼한시대 당시에 속했던 것이 분명한 거제도를 ‘독로국’에 비정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조건인 바다와 연해 있고 왜와 가깝다고 하는 지리적 조건은 부산 동래에도 똑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⁴⁷⁾ 독로국을 유독 거제도에만 비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 『擇里志』에도 동래는 동해의 바닷가에 있으며 왜국으로부터 육지에 상륙하는 첫 경계로 말하고 있어⁴⁸⁾ 부산 동래와 왜가 지리적으로 가까웠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김해에서 동래와 거제도는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항해 코스로 본다면 김해에서 다시 거제도로 나와 왜로 향하기보다는 동래가 위치한 수영만에

44) 梁柱東, 『增訂 古歌研究』, 一潮閣, 1965, 732쪽; 류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474쪽.

45) 『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巨濟縣 建置沿革・山川・關防・古跡條.

46) 『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昌原都護府 山川條.

47) 千寬宇, 앞 책, 1991, 65쪽.

48) 李重煥, 『擇里志』七. 慶尙道, “密陽東南 爲東萊 卽東南海上 自倭登陸之初境也.”

이르러 남으로 꺾어 왜로 가든지 아니면 동북쪽의 신라로 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철 관계 기사에서는 당시 김해와 동래는 왜는 물론 예·한과의 교류관계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위치한 동래의 지리적 중요성은 한층 크다고 하겠다.

한편 두 번째 조건인 음상사의 경우 정다산의 ‘독로=두루(혹은 도로)=상’설이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말 ‘두루기’를 근거로 ‘독로국’과 ‘상군’이 과연 어원적으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군’은 신라 문무왕대에 처음 보이는데,⁴⁹⁾ 그러나 이 지명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거제도설을 따르다면, 원래 거제도에는 ‘두루-도로’의 어원이 있었는데 삼한시대에는 이를 음차하여 ‘독로’가 되었고 신라 문무왕대에는 훈차하여 ‘裳’을 취한 것인데, 경덕왕대에 개명하여 거제군이 되었다는 것이다(도로·두루→독로→상→거제). 문제는 ‘두루-도로’라는 어원이 과연 독로국 이전부터 있었는가 하는 점인데, 거제도설에서도 짐작만 할 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만약 ‘상군’ 이전에 그러한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독로국=거제도설’은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음상사로서 고증한 ‘독로국=거제도설’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되고 있는 ‘두루-도로’의 출현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군’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유래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거제군의 옛 지명은 잘 알 수 없으나 ‘두루-도로’의 훈차인 ‘裳郡’의 ‘裳’은 ‘독로’와는 무관하게 문무왕대에 처음으로 붙여진 것인데, ‘치마’를 뜻하는 우리말 ‘두루기’의 한자어인 ‘裳’이 붙여진 것은 거제군의 지형을 본 딴 것으로 추정한다. 즉 ‘裳’은 ‘周’와 ‘回’로도 쓰여지는 등 모두 우리말 ‘두루’의 의미인데,⁵⁰⁾ 비슷한 용례로 전라도의 名

49) 『三國史記』 권34, 雜志3 地理1 巨濟郡條.

山으로 茂朱縣에 있는 ‘裳山’은 네 면이 벽처럼 서서 층층이 끊어져 사람의 치마처럼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였다.⁵¹⁾ 이를 참고해 보면, 거제군은 섬으로서 사방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치마를 두른 모습과 흡사하여 그 뜻을 충족시키는 ‘裳’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裳郡’의 설치를 언급하면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다’⁵²⁾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독로국의 위치비정에 대한 기존의 제설을 살펴보았다. 입지 조건, 음차·훈차, 그리고 삼한시대의 유적 분포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온천천과 수영만을 끼고 있고 옛 동래부의 치소가 있었던 지금의 부산 동래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론 음차로서만 ‘독로국’과 ‘동래’를 관련짓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⁵³⁾ 이 곳이 철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임을 감안해 보면 ‘독로’가 가진 뜻으로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즉 ‘독로국’의 ‘독로’를 ‘강을 끼고 있는 땅(나라)’으로 볼 수도 있으나,⁵⁴⁾ 달리 해석해보면 ‘독’은 물(水)과 관련이 깊고 ‘로’는 ‘화로’로서 ‘불(火)’과 상통하여 역시 철 생산과 관련이 깊은 국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독로국과 부산 동래

1. 동래의 지명

삼한 시기 부산 지역의 정치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독로국 관련 사료 이외에 『삼국사기』 등에 전하는 동래군·거

50) 梁柱東, 앞 책, 1965, 731~732쪽

51) 『世宗實錄』권151, 地理志 全羅道條, “裳山在茂朱 四面壁立 層層峻截 如人之裳 故稱裳山.”

52) 『三國史記』권34, 雜志3 地理1,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53) 沈奉謹, 앞 글, 1991, 32쪽.

54) 丁仲煥, 앞 글, 1970, 70쪽; 앞 책, 2000, 320쪽.

칠산국·장산국 기사와 『일본서기』의 ‘다다라’ 관련 기사뿐이다. 부산의 동래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동래군’으로 처음 나오는데, 군명의 변화 및 영현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B)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그대로 부른다. 그 영현은 둘로 동평현은 본래 대증현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그대로 부르고 기장현은 본래 갑화량곡현을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그대로 부른다.⁵⁵⁾

‘동래군’은 본래 ‘거칠산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거칠산국’으로서 신라에 병합된 이후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경덕왕대(742~765)에 군현을 일괄 개편하는데, 음차·훈차·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군현명을 바꾸면서 ‘거칠산군’도 새롭게 ‘동래군’으로 불리어졌다고 한다. 치소는 지금의 부산 동래구 일대이고, 영현인 동평현과 기장현은 각각 부산 당감동과 기장군에 비정되고 있다.

‘동래’라는 지명은 원래 옛 중국 齊 나라 땅에 漢高帝가 설치한 郡名(掖縣 등 17개가 영속됨)이다. 山東의 兗州와 萊州의 땅을 가리키는데, 바다에 접해 있는 지금의 山東省 掖縣이 治所로 알려져 있다.⁵⁶⁾ 위치상으로 보면, 말해만 남쪽의 산둥성 북부해안에 있으면서 요동반도의 旅順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동래군’ 이외에 몇 개의 ‘동래’ 용례가 보이는데,⁵⁷⁾ 그러나 모두 산둥성에 있던 ‘동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산 동래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거칠산’ 대신 ‘동래’라는 중국의 지명이 붙여지게 된 과정은 잘 알 수 없다. 다만 부산의 ‘동래’는 산둥 반도에 있는 ‘동래’와 그 지정학적 위

55) 『三國史記』권34, 雜志3 地理1 東萊郡條.

56) 『大漢和辭典』권6, 198쪽.

57) 『三國史記』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년조, 榮留王 24년조, 寶藏王(上) 4년조, 百濟本紀3 蓋鹵王 18년조.

치가 비슷하고 삼국시대부터 바다를 통해 상호 왕래도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후술할 이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인 ‘봉래’와 관련시켜 본다면, ‘동래’는 ‘동쪽의 봉래’ 혹은 ‘새로운 봉래’로서 모두 미칭으로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동래’는 독로국과의 관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음차로나 훈차로나 일단 원래의 지명인 ‘거칠산’의 음가와는 무관하게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거칠산군(국)’이 ‘동래군’으로 바뀌기 이전의 용례는 아래의 몇 개의 사료에서도 보인다.

(C) ①中祀는…四海로서 동쪽의 阿等邊(一云 斤鳥兄邊 退火郡), 남쪽의 兄邊[居柒山郡], 서쪽의 未陵邊[屎山郡]…에서 지냈다.⁵⁸⁾

②居道는 그 族姓을 잃어버렸으므로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이사금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이 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 지경에 끼어 있었는데 자못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거도는 변경의 관리가 되어 몰래 이를 併呑할 뜻을 품고 있었다. 해마다 한번씩 많은 말을 張吐의 별판에 모아서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려 이를 놀이로 삼게 하니 그 때 사람들은 거도를 馬叔이라 일컬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이를 익혀 보고는 신라에서 늘 하는 일이라 하여 꾀이히 여기지 않았더니 이에 兵馬를 일으켜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기회에 쳐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⁵⁹⁾

③異斯夫[혹은 湄宗이라고도 한다]는 성은 金氏이고 奈勿王의 4세손이다. 智度路王 때에 바닷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居道の 술책을 물려받아 馬戲로써 加耶[혹은 加羅라고도 한다]를 속여 이를 쳐서 빼앗았다.⁶⁰⁾

58) 『三國史記』권32, 雜志1 祭祀條.

59) 『三國史記』권44, 列傳4 居道條.

60) 『三國史記』권44, 列傳4 異斯夫條.

신라의 四海祭 가운데 남쪽의 ‘兄邊’을 언급하면서, 이 곳이 위치한 ‘거칠산군’을 들고 있다(C-①). ‘형변’은 신라 때 南海神을 모신 곳인데, 그 위치는 현 남쪽 해안의 ‘兄邊部曲’⁶¹⁾이 있었던 동래를 가리키는 것임은 분명하다. 신라의 국가 제사의 대상인 山·川·鎭·海 등은 모두 화랑의 주술적 종교적 의식을 위한 遊娛의 대상지로서 통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고 하는데,⁶²⁾ ‘거칠산군’이 거명되는 것으로 보아 ‘동래군’으로 바뀌는 경덕왕 이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 통일 이전, 좀 더 좁혀본다면 김해 가락국 병합(532) 이전에 이 곳에 ‘거칠산국’이라는 독자적인 정치체가 있었고, 신라 편입 이후에도 군명으로서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C-②③).

‘우시산국’과 ‘거칠산국’(C-②)은 각각 지금의 울산과 동래 지역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두 지명 모두 고유의 소리 혹은 뜻을 취해 한자로 표기했을 것이다. 거칠산국을 동래로 비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두 곳이 함께 정복되는 등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칠산국’은 물론 ‘우시산국’도 ‘叢山’의 별칭인 ‘上山’ (=‘우시산’ 혹은 ‘웃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동래에 비정하기도 한다.⁶³⁾ ‘上山’을 ‘叢山’으로 본 것은 자료에 근거한 만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술할 바와 같이 ‘거칠산국=장산국=내산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동래지역에 ‘거칠산국’과 ‘우시산국’ 두 국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⁶⁴⁾ 이 점은 ‘장산’

61)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古跡條.

62)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95쪽·209쪽.

63) 丁仲煥, 앞 글, 1970, 67~68쪽; 앞 책, 2000, 318~319쪽.

64) 부산의 고대 정치체를 『삼국지』와 『삼국사기』에서 각각 ‘독로국’과 ‘거칠산국’으로 달리 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복수의 정치체를 상정하기도 한다. 즉 원래는 이들 국은 이 지역에 공간적으로 별도로 존재한 ‘국읍’ 수준의 정치체로서 각각 해양(왜)과 내륙(신라)을 지향으로 하는 등 사회발전의 동력이 달랐는데, 양자의 대립 속에 결국 거칠산국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朱甫曠, 앞 글, 1997, 77쪽의 주 23 참조). 두 세력이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계기적으로 성립한 정치집단으로 상정하

부근에는 삼한 시대 ‘국’의 존재를 상정할만한 고분군도 존재하지 않고, 삼국시대의 이 지역의 대형 고분인 복천동 고분군과 연산동 고분군도 동일시기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영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우시산국은 ‘于柚村’ 혹은 ‘屈阿火村’⁶⁵⁾과 마찬가지로 종래 대로 울산의 옛 지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의 신라 편입 시기와 관련하여, 두 국 병합의 당사자인 거도는 신라 탈해이사금 때에 활약한 것으로 전한다(C-②). 초기기록이기도 하거니와 그 씨족·성씨 및 출신지도 전하지 않는 등 기년 비정과 출자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거도는 지증왕대에 ‘변관’이 되는 등 이사부에 앞서는 인물임은 분명하고(C-③), ‘우시산국’(=울산)과 ‘거칠산국’(=동래)의 멸망 시기는 신라의 가야 평정 이전의 동남해안 진출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해 보면, 거도의 활동 시기는 ‘거칠산군’(=동래)에서 신라계 유물이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5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⁶⁶⁾ 그리고 이사부는 지증왕 때에 ‘변관’이 되어 김해 가락국을 압박하여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가 ‘바닷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활동한 곳은 김해에 이웃해 있으면서 거도 때 이미 신라로 편입된 바 있는 ‘거칠산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거칠산국’은 이웃한 ‘우시산국’과 함께 다른 가

면 타당성이 있겠으나, 삼한·삼국시대 유적 분포라든지 지리지에 보이는 군현의 영속 관계로 볼 때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에 동일 시기에 복수의 ‘국읍’ 세력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5) 『三國史記』권45, 列傳5 昔于老條, 권34, 雜志3 地理1 臨關郡條.

66) 복천동 21·22호분에서는 경주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식의 ‘有蓋式高杯’가 처음 출토되었고, 다음 단계인 10·11호분에서는 直線의 器型·上下交互式 透孔·鋸齒狀의 波狀文 등 신라토기문화의 제 특징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鉢形器臺’가 출토되었다(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Ⅱ』(本文), 1990, 85~86쪽). 이 보다 약간 늦은 5세기 후반 이른 시기의 53호분에서는 신라계 토기인 ‘二段上下交互透窓高杯’가 63점 출토되었는데, 전체 고배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주된 토기문화가 신라계토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53號墳』, 1992, 92~97).

야제국 보다는 이른 시기인 5세기 중반에 신라에 편입된 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가 이 지역을 병합하는 5세기 이전에는 ‘거칠산국’이 있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국명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거칠부’를 ‘荒宗⁶⁷⁾’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칠’은 한자어로는 ‘荒’이므로 ‘거칠산’은 ‘황산’으로서 지금의 부산 연산동에 소재한 ‘황령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원래는 ‘거친뢰’였을 것인데 신라 병합 후 음차·혼차하여 ‘거칠산’이 되었고, 이후 모두 혼차하여 ‘황령산’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의 황령산 아래 배산에는 연산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유적에서는 전대의 가야적인 요소는 많이 사라지고 거의 신라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음이 확인되었다.⁶⁸⁾ 따라서 신라로 편입될 당시 이 지역은 부산 동래의 중심지로서 그 배경을 이루는 主山인 ‘거칠산’의 이름을 딴 ‘거칠산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병합 이후 ‘거칠산군’으로 편제된 것이다.⁶⁹⁾

그런데 다른 사서에서는 거칠산군의 또 다른 이름이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동래현은 옛날의 장산국[혹은 래산국이라고도 한다]으로서 신라가 차지하고는 ‘거칠산군’을 두었고 이곳의 또 다른 이름으로 菴山國(=萊山國)과 蓬萊縣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⁷⁰⁾

먼저 ‘장산국’(=내산국)의 경우, 실제 그 지명의 유래가 오래되었음

67) 『三國史記』권44, 列傳4 居柒夫條.

68)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三國時代 遺蹟과 遺構』, 1999, 113~119쪽.

69) ‘蓮山洞’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두 설이 있다. 이 곳이 낮은 늪지대로 연꽃이 많고 주위가 盍山·荒嶺山 등 산지로 이루어진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옛부터 거주지가 많았던 金蓮山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地名總攬』6, 2000, 37쪽).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충남 連山(현재의 論山)의 옛 이름이 黃山인 점, 황령산의 ‘嶺’은 곧 ‘連山’인 점, ‘蓮’과 ‘連’은 음통한다는 점, ‘連’은 ‘잇는다’는 뜻 이외에 ‘길이 험하여 더디다’는 뜻이 있는 점 등을 참고해 볼 때 ‘황령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70)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建置沿革·郡名條.

은 다음의 『三國遺事』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D) 절의 고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 신라 진골 제21대왕 신문왕 때인 영순 2년 계미[본문에 원년이라 한 것은 오기이다]에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곧 동래현이니 또 내산국이라고도 한다] 온천에 목욕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屈井驛’ 桐旨野에 이르러 쉬었다. 문득 한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쫓으니 꿩이 날아 ‘金岳’을 넘어가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공은 이것을 보고 측은한 느낌이 있어 그 땅을 점쳐 보았더니 절을 세울만하다고 했으므로 서울로 돌아가 왕에게 아뢰어 그 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에 절을 세워 이름을 靈鷲寺라고 했다.⁷¹⁾

이 기사에서는 신문왕 때에 온천으로 유명한 ‘장산국’이 있었고, ‘동래현’의 별칭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라의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 온천⁷²⁾에서 목욕하고 경주로 돌아가는 길에 ‘屈井驛’ 桐旨野(=靈鷲寺)와 金岳에서 쉬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종래에는 靈鷲寺의 寺址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長鬐縣’(경주 동북방면)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래에는 충원공의 노정으로 동래현→굴정역→경주 루트를 상정하면서 ‘屈井’이 ‘屈弗’(=屈火)의 오기일 가능성을 들어 ‘울산’으로 비정하기도 한다.⁷³⁾ 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이 기록을 통해서도 ‘장산국=내산국’은 곧 ‘동래현’이라고 하므로 ‘거칠산군’과 동일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萊山’은 중국 山東城黃縣의 동남쪽에 있는 산 이름인데, 위치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동래’는 물론 후술할 ‘봉래’와도 같다. ‘거칠산’과 ‘장산(=내산)’은 음운상으로

71) 『三國遺事』권3, 塔像4 靈鷲寺條.

72) 장산국의 온천은 이른바 후대의 ‘溫井’을 가리키는 것인데, 병을 지닌 사람이 목욕만 하면 곧 낫고 신라 때 왕이 여러 번 와서 돌을 쌓고 네 모퉁이에 구리기둥을 세웠다고 전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山川條). 온천으로 그 유래가 오래된 지금의 동래 온천동 일대를 가리키는 것임은 물론이다.

73) 村上四男 撰, 『三國遺事考証』下之一, 塙書房, 1994, 422쪽.

공통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⁷⁴⁾ ‘蓂’과 ‘萊’는 모두 ‘거칠(다)’의 옛 형태인 ‘가시리’에 대한 훈차로 보는 견해⁷⁵⁾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산국=내산국’은 ‘거칠산국’을 훈차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출현시기와 관련하여 ‘동래’와의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蓬萊縣’⁷⁶⁾은 이전의 다른 사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신선사상의 유행과 관련하여 아마 후대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래’는 원래 중국의 삼신산(蓬萊·方丈·瀛州)의 하나로서, 신선이 산다는 발해에 있는 仙山의 이름 혹은 산동성 黃縣의 동북(산동반도 북쪽)의 縣·城·鎭 이름이다.⁷⁷⁾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의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동래의 이칭으로 남게된 것일까? ‘봉래’는 ‘동래’와 마찬가지로 미칭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한데, 모두 산동반도 북부에 위치하는 등 원래의 지역도 같다. 지금 부산에 전하고 있는 동래의 ‘칠산동’을 비롯하여 ‘선동’, ‘신선동’, ‘신선대’ 등 신선과 관련된 지명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萊’가 ‘거칠다’는 뜻을 가졌고, ‘蓬’도 ‘흐뜨러져서 산란한 모양’을 가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⁷⁸⁾ 어원적으로 보면 ‘봉래’도 역시 ‘거칠(산)’을 모티브로 훈차한 복합적인 성격의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부산 동래 지역의 옛 명칭을 살펴보았다. 거칠산국·장산국·내산국은 음차 혹은 훈차로 ‘거칠산(=황령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내산’은 물론 ‘동래’와 ‘봉래’는 미칭으로 모두 중국 산동반도 북부의 지명을 따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명의 변화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독로국이 처음 보인 이후 거칠산국(군)→장산국·내산국→동래

74) 村上四男 撰, 앞 책, 1994, 421쪽.

75) 류열, 앞 책, 1983, 490쪽; 『大漢和辭典』9, 730~731쪽. 자전상으로 ‘萊’는 교위를 뜻하고, ‘蓂’은 羊桃로서 복숭아와 비슷하나 맛이 쓴 과일을 뜻하는 등 전체적으로 ‘거칠다’는 뜻과 상통한다.

76)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郡名條.

77) 『大漢和辭典』9, 855~856쪽.

78) 『大漢和辭典』9, 853쪽.

군의 순서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 경덕왕대에 ‘거칠산군’을 개명한 ‘동래군’은 미칭으로 ‘독로국’의 ‘독로’에서 일부 음차하고 ‘거칠산군’의 ‘거칠’에서 일부 훈차하여 붙여진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치소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면, ‘동래’는 ‘새로운 거칠산군(=내산군)’ 혹은 ‘동쪽의 거칠산군’이라는 뜻으로 이전의 ‘독로’와도 음통하기 때문에 붙여졌을 수도 있다.

2. 동래의 영현

독로국의 범주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통일신라 때의 동래군의 영현까지 포괄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하는 바 동래군의 영현인 東平縣과 機張縣의 지명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평현’은 현재의 부산 북구 당감동 일대를 가리키는데, ‘大甑縣’을 신라 경덕왕대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⁷⁹⁾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대증산성을 쌓았다.”⁸⁰⁾고 하여 ‘대증산성’이 보이는데, 이것이 동평현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같은 시기 신라와 가야의 일련의 전쟁기사 속에 나오는 加召·馬頭城(=청도)의 축조와 관련이 있다면, 위치상으로는 동평현 보다는 현재의 양산 물금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⁸¹⁾

‘大甑’ 혹은 ‘甑山’이라는 지명은 주변의 지세 혹은 산 모양이 ‘시루’를 엮어놓은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79) 『三國史記』권34, 雜志3 地理1 東萊郡條.

80) 『三國史記』권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10년(121) 2월조.

81) 현재의 당감동에도 그 기원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토성지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본다면(釜山市, 『釜山の文化財』, 昭文堂出版社, 1977, 215~217쪽), 성 축조의 조건은 부산 당감동이나 양산 물금이나 동평현이나 모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가야의 전쟁은 주로 양국으로 통하는 길목인 양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대증산성의 위치도 이곳으로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금에는 ‘獨山’ 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쌓았다는 ‘曾山城’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丁仲煥, 앞 책, 2000, 165쪽), 『大東輿地圖』에도 비슷한 위치에 ‘甑山’이 표시되어 있다.

동일 지역이 아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가마솔 산’을 뜻하는 ‘부산’이라는 현 지명도 지형을 본 따 붙인 동평현의 옛 이름 대충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⁸²⁾ 그렇다면 ‘大甑縣’을 ‘東平縣’으로 개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東’의 뜻은 ‘새’이고 ‘平’은 ‘伐’과 통하므로 ‘동평’은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인데,⁸³⁾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라가 ‘거칠산군’을 개명하여 ‘동래군’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기장현’은 지금의 부산시 기장군을 가리키는데, 신라 때는 ‘갑화량국현’으로서 경덕왕대에 ‘기장현’으로 고쳤다고 한다.⁸⁴⁾ ‘갑향’, ‘갑국’, ‘갑벌’, ‘갑화량국(촌 혹은 성)’ 및 ‘기장’ 등은 어원상으로 모두 동일한데, 고유지명을 음차 혹은 훈차하여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갑화량국현’에 대한 어원적 분석으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즉 ‘갑국(=변국)’에서 유래했다는 견해,⁸⁵⁾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옛말 ‘가바라’에 대한 음차-훈차-보충적 음차로 보는 견해,⁸⁶⁾ ‘갑’은 곧 ‘大’로서 ‘큰 마을’로 해석하는 견해,⁸⁷⁾ ‘갑’은 곧 ‘首=始=初’로서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올 때 ‘첫 마

82) 동평현의 치소 부근에 ‘大甑山’이 있어 그 이름이 현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金義煥, 『釜山の 古蹟과 遺物』, 安龍福將軍紀念事業會, 1969, 99~100쪽), 실제 동평현에는 마치 가마솔 모양 같이 생겨서 붙여진 산 이름인 ‘釜山’이 있었다고 전한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山川條).

83) ‘東’은 혹은 ‘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새롭다’는 뜻으로 東川・東土・東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梁柱東, 앞 책, 1965, 384~392쪽). 한편 동래・동평은 물론 당시 양주 관할 아래에 있었던 東安郡・東津縣・東畿縣 등 ‘東’이 붙은 모든 지명은 김해 소경의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붙여졌다는 견해도 있으나(沈奉謹, 앞 글, 1991, 32쪽), 본고에서는 취하지 않는다.

84) 『三國史記』권34, 雜志3 地理1 東萊郡條.

85) 梁柱東, 앞 책, 1965, 391쪽.

86) 류열, 앞 책, 1983, 513~514쪽. 즉 ‘갑화량’의 ‘갑’은 ‘가’의 음차이고 ‘화’는 ‘불’의 형태 변종인 ‘발’(옛 형태→‘바라’)의 훈차이고 ‘량’은 ‘바라’의 ‘라’에 대한 보충적 음차이고, 개명된 지명인 ‘기장’의 ‘기’도 ‘거’에 대한 음차이고 ‘장’은 ‘벌다’의 뜻으로 ‘벌’의 옛 형태인 ‘버러’의 형태 변종으로 ‘바라’에 대한 훈차라고 하였다.

87) 在釜舊機張郡人會, 『舊機張郡土誌』, 1992, 506쪽.



〈그림-1〉 대동여지도(부산)

을'이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견해⁸⁸⁾ 등이 그것이다.⁸⁹⁾ 모두 '갑화량곡'에 대한 음차·훈차와 현재의 지형 조건을 감안한 지명 분석이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가바라' 즉 '갑벌'의 음차-훈차-보충적 음

88) 鄭容淑, 「新羅·高麗時代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韓國民族文化』8,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6, 36쪽.

89) 이외에도 '甲'과 '機' 모두 병장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 곳에 고구려 병력이 주둔하였던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견해도 있고(朱甫噉, 앞 글, 1997, 95~96쪽), 『書經』의 '機張' 용례와 기장현의 별명인 '車城'에 주목하여 변방의 군사적 중요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上), 2001, 209쪽).

차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갑화량곡현(=기장)의 別號인 ‘車城’⁹⁰⁾이 ‘거벌’로서 ‘가바라’의 음차·훈차인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上忽縣’이 ‘車城縣’이 된 예⁹¹⁾가 있음을 볼 때 ‘上’, ‘車’, ‘甲’은 모두 같은 의미로 ‘머리’를 훈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동래의 치소

삼한·삼국시대의 독로국이 부산 동래에 위치한다면, 그 치소는 지금의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삼국시대에 조영된 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조선시대 동래군의 읍내였던 동래구 복산동·명륜동·수안동 일대가 유력한데, 그러나 여기에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래의 치소가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의 명륜동 일대가 삼한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함 없이 치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전하는 바 동래성 이외에 해운대포에 ‘古邑城’이 있었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 견해도 있다. 즉 처음의 치소는 지금도 신라식 성지가 남아 있는 수영 서편의 배산의 동남쪽 평지(지금의 수영구 망미동)에 있었는데, ‘동래’라는 지명은 이곳이 황령산의 동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령산 즉 ‘거친 산의 동쪽지방’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는 것이다. 이후 치소를 내지인 지금의 명륜동 방면으로 옮기는데, 그 시기는 ‘동래군’으로 개칭되는 신라 경덕왕대로 보았다.⁹²⁾

90)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機張縣 郡名條.

91) 『三國史記』권35, 雜志4 地理2 唐恩郡條.

92) 鄭容淑, 「고려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釜山廣域市東萊區, 1995, 246쪽. 한편 『高麗史』兵志의 ‘東萊郡城’ 기사를 근거로 동래의 치소가 망미동에서 현재의 명륜동으로 옮긴 시기를 고려 현종 12년(1021)으로 보는 설도 있다(金義煥, 「東萊古邑城址攷」 『釜山の遺蹟과 遺物』, 安龍福將軍紀念事業會, 1969, 35~37쪽).

‘동래’의 어원적 풀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해운포의 ‘고읍성’은 수영강 동편이기 때문에 서편의 배산의 성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⁹³⁾ 또한 이 견해를 따른다면 배산을 ‘황령산의 동쪽’으로 간주하여 ‘동래’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덕왕 이전에 이미 ‘동래’라는 지명이 있게 되는 모순점이 있다. ‘동래’가 방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그 기준은 황령산이 아니라 수영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렇게 되어야만 ‘동래’는 서쪽의 배산이 아니라 동쪽의 명륜동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 경덕왕대의 ‘동래군’으로의 개명한 의미라든지 치소의 이동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부산 지역이 신라로 편입될 당시의 치소가 배산 아래 평지였다고 하더라도, 편입 이전의 삼한시대 독로국 당시에도 이 곳이 과연 치소였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5세기 중반 이후 동래는 신라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후 이웃한 김해 가락국이 신라에 병합(532)될 무렵에는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신라로 편입되어 지방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⁹⁴⁾ 이 같은 지방세력 재편과정에서 신라는 구세력의 중심지인 복천동 고분군 집단이 위치한 동래 명륜동 일대는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때 연산동 고분군 피장자 집단으로 중심세력이 교체되면서 치소도 함께 황령산 아래 배산의 평지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 삼한시대 당시의 온천천·수영강의 하상 폭은 지금 보다는 훨씬 넓었기 때문에, 온천천·수영강 자체가 좌(동)·우(서)로 나누는 정치적·지역적 경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을 것이다.

사실 신라가 이 곳을 처음으로 언급할 때의 지명이 ‘거칠산군’이었음

93) 물론 『東萊府誌』(1740) 城郭條에는 “古邑城 在海雲浦 水營西”라고 하여 지금의 망미동 일대로 보는 듯하나, ‘水營西’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보이지 않는 등 후대에 추가된 것이 분명한 만큼 위치 비정의 절대 자료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大東輿地圖』와 『大東地志』에는 각각 ‘長山國古址’, ‘古國基’라고 하여 수영강 동편에 옛 터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古邑城’은 관계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4) 朱甫墩, 앞 글, 1997, 82~95쪽 참조.

을 상기해 보면, 신라 군현으로 편입될 당시의 중심지는 온천천변이 아니라 황령산 아래 배산 부근이었음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 즉 연산동 고분군이 위치한 ‘배산’은 야트막한 구릉에 가까운데, 신라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배산 바로 곁에 우뚝 솟은 황령산을 主山으로 주목하여 ‘거칠산국(군)’으로 명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수영 서편의 배산 동남쪽 평지에는 신라식 토성터가 남아 있고, 신라 때의 石浮屠 1기와 부서진 탑 및 ‘東萊’·‘萊郡’ 등의 문자가 양각된 古瓦片이 발견되고 있어,⁹⁵⁾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곳이 거칠산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경덕왕대에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영현인 대증현과 갑화량곡현도 각각 동평현과 기장현으로 개칭하는데, 이 때 중심지를 다시 온천천 이동의 명륜동 쪽으로 옮겼을 것이다. 미칭으로 사용된 ‘동래’라는 지명도 방향으로 본다면 치소가 수영강을 기준으로 그 이동인 ‘황령산의 동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붙여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상에서 지명·영현·치소를 중심으로 독로국과 이 국이 위치했던 부산 동래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동래 지역의 고명인 거칠산국·장산국·래산국은 음차 혹은 훈차로 ‘거칠산(=황령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동래’·‘봉래’·‘내산’은 미칭으로 모두 중국 산둥반도 북부의 지명에서 따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래군’은 ‘독로국’의 ‘독로’에서 일부 음차하고 ‘거칠산군’의 ‘거칠’에서 일부 훈차한 것으로, 치소를 옮기면서 ‘새로운 거칠산군(=내산군)’ 혹은 ‘동쪽의 거칠산군’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다. 신라 때 동래군의 영현으로는 동평현과 기장현이 있는데, 각각 ‘새로운 땅’과 옛말 ‘가바라’에 대한 음차-훈차-보충적 음차로 생겨난 말이다. 독로국의 원래의 치소는 지금의 동래 북천동·명륜동·수안동 일대인데, 신라가 이 지역의 세력을 재편하면서 배산 방

95)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24쪽; 金義煥, 앞 글, 1969, 34~41쪽.

면으로 읍긴 것이다. 이후 '동래군'으로 개명하면서 다시 명륜동 방면으로 읍긴 것으로 추정된다.

V. 독로국의 사회성격

1. 유적과 유물

독로국을 포함하여 변한사회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고 자료 및 문헌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산·김해 등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변한 12국의 분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 자료를 살펴보면, 삼한 시기의 변한사회에는 목관묘와 목곽묘의 보급, 와질토기의 등장, 철기문화의 보편화, 한군현 등 외래계 유물의 등장 등의 특징적인 문화현상이 확인되고 있다.⁹⁶⁾ 이 같은 특징은 주로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에서 다양하게 보이는데,⁹⁷⁾ 특히 분묘유적으로서 2세기 후반 이후 등장하는 김해 양동 162호와 울산 하대 「가」지구 43·44호 등 이른 시기의 목곽묘를 통해서는 구릉의 사면에 위치한 입지의 우월성, 무덤의 거대화, 매납품의 양적·질적 증가 등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의 출현과정을 엿볼 수 있다.⁹⁸⁾ 이는 전대와는 구분되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가진 정치체인 '국'의 출현을 의미하는데, 인접한 부산의 독로국의 성장과 발전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겠다.

96) 申敬澈, 「金海禮安里 160號墳에 對하여-古墳의 發生과 관련하여-」 『伽耶考古學論叢』1, 伽耶文化研究所, 1992.

97) 김해 봉황대와 산청 소남리 유적은 생활 유적인데, 다양한 형태의 집터 및 부뚜막 시설과 아궁이형 토기, 그리고 콩·팥·밀·보리 등 탄화된 곡류와 쌀, 습기 방지를 위한 특수 바닥시설 등이 발견되어 생활 양상 전반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국립김해박물관·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2000, 60쪽).

98)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垵遺蹟-古墳Ⅰ』, 1997;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부산의 선사시대 유적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하지만, 삼한시대의 유적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삼한시대 이전의 유적으로는 먼저 1990년 이후 발굴·지표채집 된 해운대구·금정구 일대의 좌·중동, 청사포, 노포동 등의 구석기 시대 후기의 유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한반도 동남 해안의 부산지역에서도 1만 7천~1만 5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⁹⁾ 신석기 시대의 부산은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양상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영도·가덕도·암남동·다대포·북정·범방패총 등 18여 개의 유적은 주로 해안과 하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부산의 유적은 기원전 10세기~기원전 2세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데, 생활 유적·패총 유적·분묘 유적 등 39여 곳이 확인되었다.¹⁰⁰⁾

부산지역의 삼한시대 유적은 현재까지 다섯 개가 조사, 확인되었다. 동래·조도 패총 등 생활 폐기장 유적 두 곳과 구서동·북산동·노포동 유적 등 분묘 유적이 그것인데, 이외에 수습 유적으로 동래 온천동 유적¹⁰¹⁾이 있다. 노포동·동래 패총·조도 패총 등 중요 유적 대부분이 3세기대의 것이기 때문에 삼한시대 전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다량의 철제품과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등 선진적인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서동 유적은 유물만 알려져 있고 유구의 형태나 규모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주머니호·완·원저단경호·기대 등 이른 시기의 와질토기류와 단조철부가 출토되었다.¹⁰²⁾ 아래에서는 삼한시대 부산의 유적 가운데 정식 발굴 조사된 동래·조도 패총과 노포동·북

99) 釜山市廣域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7, 13~22쪽; 河仁秀, 「海雲臺 中洞·佐洞 舊石器文化」, 『嶺南地方의 舊石器文化』 第8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1999, 65~81쪽; 박영철·장용준, 「釜山の 舊石器文化」, 『港都釜山』17,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1, 51~61쪽.

100) 서영남, 앞 글, 2001, 312쪽의 <표 3>.

101) 申敬澈, 「釜山 東萊 溫泉洞 出土 無文土器」, 『伽倻通信』10, 1984.

102) 申敬澈, 「釜山 久瑞洞 出土의 瓦質土器」, 『嶺南考古學』2, 1986;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Ⅱ』, 1998, 129~130쪽.

산동 분묘유적의 출토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동래 패총은 온천천 가까이에 형성된 생활 폐기터이다. 유적 형성의 중심 시기는 2세기 후반~3세기 후반인데, 토기·철기·골각기 특히 동물의 뼈가 많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항아리·시루·연질독·화로모양토기·굽다리접시 등 있는데, 옹과 완이 대부분이다. 연질·와질·도질제 등 다양하지만, 연질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철기류는 주조철부·철침·철제 낚시바늘 등이 출토되었다. 골각기는 화살촉·침·사슴뿔자루 등이 있고, 동물 뼈는 복골로 추정되는 사슴의 견갑골 및 말·소·멧돼지·개 뼈 등이 많이 나왔다. 이외에 방추차와 원판형 토제품도 출토되었다.¹⁰³⁾

조도 패총은 영도구 동삼동 하리의 조도(=아치섬) 안에 있는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패총인 동삼동 패총과 마주보고 있는데, 2개 지구 가운데 제I 지구가 3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형성된 삼한시대 유적이다. 출토 유물로는 토기·철기·골각기·어망추·동물유체 등이 있다. 토기류는 다수의 연질옹을 비롯한 와질토기편과 왜의 토사기계 구연부편 등 다양하게 보이고, 철기류는 철검과 철도자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또한 170cm 내외의 신장에 두향이 동쪽인 완전한 형태의 인골 1軀가 확인되었다. 두개골 부근에서 頸飾(碧玉製 管玉 7점과 水晶製 切子玉 2점), 인골과 나란히 왼쪽에서 철검 1점, 그리고 발치 부근에서 골촉(1점)과 철촉(3점)이 각각 출토되었다.¹⁰⁴⁾

노포동 고분군은 3세기 중엽~4세기 초까지 조영된 분묘 유적이다. 노포동은 울산과 양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는데, 충적지와 얇은 구릉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의 유적도 비교적 조밀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에

103)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 - 東萊貝塚』, 1997, 141~144쪽의 도판 13~16;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112~117쪽.

10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123~128쪽.

서는 삼한시대 목곽묘 45기와 옹관묘 6기 등 총 5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36기이다. 출토 유물로는 토기·철기·철기 등이 있는데, 특히 지배자급의 분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토기류는 가장 규모가 큰 목곽묘 3기에서 출토된 외절구연고배, 광구·직구의 부장 전용 목항아리, 항아리와 화로모양토기 등 많은 양의 와질토기 및 항아리(=원저단경호)와 연질옹(=옹관) 등 가장 이른 시기의 도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양도 많고,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화살촉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늦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환두대도는 비교적 늦은 시기의 분묘(31·33호)에서 모두 3점 출토되었고, 철모는 환두대도와 공반(31호)하여 출토되었다. 철검은 단조철부와 함께 많은 양이 출토되었고, 철도자는 주로 소형이지만 30cm에 가까운 대형(33호)도 있다. 유자이기형 철기는 유견철부와 유자이기가 절충된 형태이다.¹⁰⁵⁾ 이외에 환두대도의先端部(31호)에서 원문과 삼각형문 등을 음각한 푸른빛의 철기도 나왔는데, 木製 혹은 革製 방패 표면에 칠했던 장식무늬로 추정된다.¹⁰⁶⁾

복산동 고분군은 복천동 고분군과 동일 구릉상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두 고분군이 시기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¹⁰⁷⁾ 현재까지 목관묘 1기와 초기 목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목관묘는 소형으로서 구릉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일한 출토품인 와질옹 1점은 구서동 출토품과 비교된다고 한다. 목곽묘는 사라리 130호 목관묘와 김해 양동리 162호·하대 44호 사이에 위치하는데, 목곽묘의 시원적인 형태로서 전대의 목관묘 출토 유물의 특징이 많이 보이고 있다. 5호묘는 방형으로서 토기류는 전혀 없고, 철검(원형 2점 및 편)·단조철부(2점)·따비(1점)·철촉(원형 17점 및

105)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22~60쪽, 141~148쪽.

106) 釜山大學校博物館, 앞 책, 1988, 16쪽·21쪽·82쪽.

107) 申敬澈, 앞 글, 1995, 190쪽.

편 등 총 25여 점)·철편 등 철기류만 출토되었다. 7호묘는 세장형으로 목관묘계의 목곽묘일 가능성이 있는데, 태토가 매우 정선된 와질제 兩廂附臺附廣口壺 1점만이 출토되었다. 9·11·12호묘는 대부분이 파괴되어 유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9호묘에서는 와질제 흑회색 臺附廣口壺와 회청색 兩廂附廣口壺 각 1점 그리고 鑄造鐵斧 2점, 11호묘에서는 와질 단경호 1점 및 단조철부와 철검 각 1점, 12호묘에서는 방제경과 철검 각각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방제경은 銅質이 좋지 않은 지름 4.2cm의 소형 重圈文日光鏡系인데, 1/2이 결실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倣製鏡으로서, 경주 사라리 130호 출토품과 유사하다.¹⁰⁸⁾

이상에서 부산지역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을 개관해 보았다. 5개 유적 모두 강안이나 해안에 자리잡고 있고, 조도 패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천천 수계에 집중되는 국지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부산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의 분포를 참고해 보면, 전역에 고루 산재해 있어 어느 특정 지역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화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는 북천동·연산동을 비롯하여 장전동·거제동·초읍동·여고·수영·좌천동·범일동·가야동·당감동·개금동·주례동 등지에 고분군이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¹⁰⁹⁾ 이 가운데 현재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새롭게 조사된 유적도 있는데, 대부분 해발 100m 아래의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고 앞쪽으로는 강이나 소하천을 내려다보는 입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유적은 대부분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에 분포하고 있음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¹¹⁰⁾

삼한 시대 부산의 대부분의 유적은 그 중심 연대가 3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삼한시대 전 시기를 개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거지·야철지·가마터 등 생활유적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108)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10~18쪽, 20~21쪽, 132~141쪽.

109)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20쪽.

110)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9, 12~15쪽.

지 않아 삼한 시기의 전반적인 문화양상이라든지 계통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한시대의 부산에는 변한 12국 가운데 1국인 ‘독로국’이 있었고, 특히 동래 일대는 큰 강과 해안을 끼고 있는 등 부산지역의 중심지로서 유력 정치체인 ‘국’을 형성할만한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독로국의 구조

1) 대외관계

부산 동래에 위치한 독로국은 온천천과 수영만을 끼고 있는 등 바다에 연해 있으면서 동남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독로국은 이른 시기부터 국내적으로는 수영강의 결절지를 중심으로 교역과 교통의 공동경제권을 형성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철을 중심으로 교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조건들은 독로국의 사회성격의 특징으로서 거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변한은 3세기 전반 ‘철’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의 ‘市場’을 활성화하고, 한·예·왜 및 군현과의 대외교섭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이 지역 출신으로 이른 시기에 한군현을 왕래한 廉斯鑑의 ‘鑑’가 ‘鉸’과 同字로서 ‘돈’과 ‘쇠덩이’의 뜻이 있음을 참고해 보면,¹¹¹⁾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한군현에 이미 변한의 철이 꽤 유명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실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형성된 부산 복천동 내성유적 1호 주거지 床面에서 鐵塊와 鐵滓가 출토되고 燒土의 흔적이 보이는 등 단조철기를 생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¹¹²⁾ 이를 통해 볼 때

111) 『大漢和辭典』11, 655쪽.

112) 河仁秀, 「동래복천동 내성유적발굴 조사개보」 『年報』12,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9, 91~103쪽;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萊城遺蹟』, 1990, 43쪽·61쪽; 孫明助, 「韓半島 中・南部地方 鐵器生産遺蹟의 現況」 『嶺南考古學』20, 嶺南考古學會,

부산 지역은 삼한 이른 시기부터 철기의 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지는 등 상당히 선진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세기 후반의 동래 패총에서는 ‘鍛冶爐’로 추정되는 철 생산 유구가 확인되었고,¹¹³⁾ 비록 삼국시대 이기는 하지만 복천동 고분군 10·11호분과 21·22호분에서는 수십 매의 철정(철소재)이 관대로 사용되는 등¹¹⁴⁾ 이 지역이 김해와 함께 대규모 철 생산 기지 내지는 독점적 유통기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국지』 왜인조에는 대방군이 설치되는 3세기 초 이후 景初·正始 연간까지 군현과 왜의 교섭 사례가 집중되어 있는데, 같은 시기 변한도 한군현과 왜 등 주변제국과의 대외교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을 것이다. 『삼국지』에 기술된 바 조위의 주변국에 대한 서술은 각 국마다 차이가 나는데,¹¹⁵⁾ 마한 등과는 달리 변한과 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3세기 전반대의 변한과 왜는 상호간은 물론 ‘긴밀한 대외관계’를 매개로 하여 조위와의 친밀도가 깊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방군에서 출발하여 왜에 이르는 노정의 중간기착지로서 김해의 ‘구야(한)국’을 특별하게 언급한다든지,¹¹⁶⁾ 독로국이 왜와 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간의 이 같은 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삼국지』 「위서」 왜인전에 의하면 왜는 농사가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南北市糴’이라고 하여 남북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쌀을 구입하는 등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였다고 한다.¹¹⁷⁾ 이 때의 왜는 對馬島를 가리키는데(壹岐島도 비슷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변한도 중요 교류 대상지역

1998; 송계현, 「嶺南地域 初期鐵器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第11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2002, 45쪽.

113)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98~99쪽.

114) 釜山大學校博物館, 앞 책(本文), 1990, 101~109쪽.

115) 千寬宇, 「三韓攷 第2部「三國志」韓傳의 再檢討」 『震檀學報』 41, 1976;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216~217쪽.

116)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 狗邪韓國七千餘里”

117) 윗 책, 「魏書」 東夷傳 倭人條, “至對馬島…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이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변한의 특산물로는 鐵 및 縑布·廣幅細布가 있고, 또한 입지조건상 낙동강하류지역의 충적지(소택지와 저습지)가 발달하는 등 토지가 비옥하여 『삼국지』에도 기술된 바와 같이 오곡과 벼가 잘 되었을 것이다.¹¹⁸⁾ 특히 ‘독로국’은 지리적으로 최남단의 바닷가에 위치하면서, 동·서·남쪽으로 각각 예 및 진한·마한 및 군현·왜 등과 ‘대외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것이다. 후대 사서이기는 하지만 『택리지』에서도 이 곳이 왜와 가깝고 생산·소금 등 생활 필수품과 배를 이용한 이익이 컸음을 말하고 있다든지,¹¹⁹⁾ 동래의 고을은 동남에서 으뜸이고 바다 자원이 많고 토산물이 풍부하여 국가의 수요에 기여함이 많다¹²⁰⁾고 전하기도 한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동래의 지리적 이점과 대외교역의 특징을 잘 살필 수 있다.

사실 독로국의 이 같은 ‘대외교역’적 성격은 삼한 이전의 신석기시대부터 전개된 것이다. 즉 동삼동·조도·범방 패총 등에서는 일본산 흑요석과 조몽[繩文]계 토기·석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특히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1,500여 점의 조개팔찌[貝釧]는 흑요석과 조몽토기의 중요한 교환물자로서 쓰시마나 큐슈지역에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²¹⁾ 이것은 원거리 어업이 가능했던 생활환경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인데, 그 증거로서 부산 동삼동·범방 패총에서는 결합식 낚시바늘이 출토된 바 있다.¹²²⁾ 물론 최근 동삼동 패총에서는 국내 최고의 옹관묘 발굴 등을 비롯하여 반여동·노포동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공열토기가 출토되어 동북지방과의 인

118) 윗 책, 『魏書』東夷傳 韓條, “弁辰…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縑布 乘駕牛馬…作廣幅細布 法俗嚴峻.”

119) 李重煥, 『擇里志』七, 慶尙道, “大丘東南 至東萊 有八邑 土雖沃 近倭 不可居…挾江而與海近 有魚鹽舟船之利 亦繁華勝地也.”

120)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城郭條 李詹 邑城記.

121) 국립김해박물관·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앞 책, 2000, 20쪽; 하인수·이주언, 『新石器時代の 對外交流-釜山地域을 中心으로-』, 『港都釜山』17, 2001, 193~196쪽.

122)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凡方貝塚Ⅱ』, 1996, 91~94쪽;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1996, 148쪽.

적·물적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³⁾ 이는 삼한 이전의 이 지역의 대외교류활동이 주민 이동 등을 포함한 인적교류와 물자교류를 통해 동북방 및 일본열도 등 다양한 루트로 전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표-1〉 참조)

삼한 시기의 ‘독로국’ 단계에서도 이 같은 교류활동은 왕성하게 이어진다. 특히 풍부한 철 자원 및 식량·특산물을 매개로 하여 왜 등과의 교류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것이다. 삼한 시기 이 지역의 외래계 유물을 살펴보면, 삼한 전기의 조도 패총·내성유적 주거지(채집 유물 포함)·온천동 수습 유적에서는 야요이(彌生)식(계) 토기가 출토되었고, 조도 패총에서는 北九州 또는 山蔭 계통의 하지끼[土師器]계 토기가 출토되었다.¹²⁴⁾ 삼한 후기의 동래 패총에서는 외래계 토기로서 백제계·울산-경주-대구지역계 토기와 왜계 하지끼계 토기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¹²⁵⁾ 특히 동래패총과 가까운 거리에 삼국시대 이 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복천동 고분군이 조영되고, 하지끼 등 왜계 유물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¹²⁶⁾ 동래지역이 삼국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외교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¹²⁷⁾

12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앞 책, 1996, 148~149쪽.

124) 홍보식, 앞 글, 2000, 5~6쪽.

125) 백제계 토기는 이중구연호와 외반구연 단경호 등 호형토기 3점이 해당되는데, 복천동 80호분에서 출토된 금박샌드위치유리옥과 함께 금강유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경주-대구지역계 토기는 표면 색상이 흑색이고 口徑이 胴最大徑보다 크고 胴高가 깊은 노형토기가 대표적이고, 왜의 토사기계 토기는 태토가 정선되고 기벽이 얇고 정면이 아주 정제된 명적갈색 또는 명황갈색의 색상을 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7, 141~144쪽의 도판 13~16;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112~117쪽).

126) 申敬澈, 「三國時代의 韓半島南部와 北部九州의 相互交流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특히 嶺南出土 土師器系土器를 소재로-」 『韓國民族文化』16,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0, 55~64쪽. 한편 복천동 65호분에서는 南朝~隋代의 靑磁蓋이 출토되어 중국과의 교류관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 古墳群 第4次 發掘調査 中間報告』, 1991; 『東萊福泉洞古墳群Ⅲ』, 1996, 5~6쪽).

127) ‘대외교역’의 중심지 추정과 관련하여, 동래패총에서 10여 점 출토된 卜骨이 주목된

물론 삼한·삼국시기의 대외교류의 흔적은 부산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는데, 김해(김해 패총·내동 지석묘·지내동 옹관묘·대성동 소성유적·양동리·대성동 유적·부원동 유적·수가리·예안리 유적)·삼천포·늑도 유적·통영(우도·갈도 패총)·창원(삼동동·가읍정동 유적)·마산 현동·진주·진해 용원 유적·함안(말이산·사도리 유적)·고성 송학동 유적 등 주로 경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¹²⁸⁾ 이와 관련하여 5세기 이후 출토되는 스에끼[須惠器]와는 달리 4~5세기의 하지끼 등 왜계 유물이 경상남도 북쪽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만 출토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왜의 대외교역이 남부지역에 한정되었다는 견해¹²⁹⁾도 참고되는데, 그러나 정치적·지리적·문화적 조건으로 볼 때 교역의 중심은 역시 부산과 김해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제사적 성격을 가진 복골이 주로 중국 군현에서 일본열도로 가는 해상 교통의 요지에 분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곳이 원거리 항해의 안전을 점치고 기원하는 출발지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李賢惠, 「金海地域の 古代 聚落과 城」 『韓國古代史論叢』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6, 168~169쪽). 『삼국지』『위서』 동이전 왜인조에 보이는 원거리 항해 기원 기사, 복골 관련 기사, 그리고 주로 강이나 바닷가에서 출토되는 제사관련 유적을 참고해 보면 바다라는 지역 조건과 결부된 제사 관련 유물임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이것이 근거리 항해와 원거리 항해의 기준점이 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8, 121쪽), 당시 바다를 생업조건으로 한 집단들은 위정자 차원의 원거리 항해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연·근해를 중심으로 어로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된 제사행위가 소단위별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복골 출토 지역이 모두 원거리 항해의 중심선에 있다는 것과 원거리 항해가 가능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3세기 후반에 동래패총과 조도패총에서 모두 복골이 출토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가 같은 시기의 원거리 항해의 센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골을 근해와 원양 활동 집단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바다라는 생업조건 및 이와 관련된 제사 행위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128) 安在皓·洪潛植, 앞 글, 1998, 169~188; 高久 建二, 「韓國の倭系遺物-4~6世紀-」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2. 3., 223~228쪽.

129) 高久 建二, 앞 글, 2002, 218~219쪽.

〈표-1〉 선사~삼한·삼국 시기 부산 출토 일본열도·왜계유물

유적명	종류	일본열도·왜관계 유물	시기	참고문헌
동삼동패총	조몽계석기	黑曜石(石鋸, 石促, 小形尖頭器, 石鋸)· 鐘崎型 스크레이퍼·西北九州型 離頭鋸頭	신석기시대	②⑮⑯
	조몽계토기	西平式土器·鐘崎系土器·阿高系土器· 轟式土器·세노강式土器·曾畑式土器	신석기시대	①⑮⑯
	조몽계골기	骨製裝身具	신석기시대	⑮⑯
조도패총	조몽계석기	黑曜石剝片(수집)	신석기시대	⑮⑯
	조몽계토기	格子文押型文土器片(2)·조몽土器片(1)	신석기시대	③⑮⑯
범방패총	조몽계석기	黑曜石(石鋸, 石刃, 剝片)	신석기시대	④⑮⑯
	조몽계토기	轟B式系屈曲型土器·尖底 深鉢形土器· 貝穀文土器	신석기시대	④⑮⑯
북정패총	조몽계석기	黑曜石剝片	신석기시대	⑦⑨⑮⑯
다대포패총	조몽계석기	黑曜石剝片	신석기시대	⑮⑯
내성유적	야요이(계)토기	甕(46)·壺(13)	전 2C후반	⑥⑦
북정패총	야요이(계)토기	야요이토기(1)	전 2C후반	⑦
조도패총	야요이(계)토기	야요이토기(3점)	전 2C후반	③⑧⑨⑦
온천동유적	야요이(계)토기	壺(1)	전 2C후반	⑩⑦
조도패총	하지끼토기	구연부편	3C말~4C초	③⑫
동래패총	하지끼토기	甕·山陰系二重口緣壺	3C말~4C초	①⑫⑳
북천동고분군	하지끼계토기	赤褐色軟質甕·小形廣口壺·小形器臺	4C~5C	⑬⑳
북천동고분군	장신구	筒形銅器(9)*	4C	㉑
북천동고분군	장신구	鍍形玉製品(1)	5C중~후반	⑲
북천동고분군	장신구	豎簪	5C중~후반	⑬⑲
임석유적	장신구	貝製雲珠(1)·辻金具(7)	6C전반	⑭㉑

* 在地系인지 倭系인지 불분명 함.

〈참고문헌〉

①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三版), 一志社, 1986. ②李凡泓, 「東三洞貝塚採集石器」, 『考古歷史學誌』8,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③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④釜山廣域市立博物館, 『凡方貝塚Ⅱ』, 1996. ⑤주 44)의 글, 1971, 127쪽. ⑥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萊城遺蹟」, 1990, 59~63쪽. ⑦釜山水產大學校博物館, 『北亭貝塚』, 1993. ⑧申敬敏, 「熊川文化期 紀元前上限說 再考」, 『釜山史學』4, 1980. ⑨주 2)의 책, 1997, 94쪽, 95~96쪽. ⑩주 102)의 글, 1984, 29쪽. ⑪주 104)의 책, 1997, 52~53쪽, 79~80쪽. ⑫주 103)의 책, 1998, 112~118쪽·125쪽. ⑬釜山直轄市立博物館, 『東萊福泉洞53號墳』, 1992, 43쪽. ⑭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 杜邱洞 林石遺蹟』, 1990, 45~46쪽. ⑮鄭澄元·河仁秀,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新石器時代 文化交流研究」,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14~37쪽, 52~71쪽. ⑯주 122)의 글, 2001, 162~192쪽. ⑰주 1)의 글, 1998, 169~188쪽. ⑱주 127)의 글, 2000, 55~64쪽. ⑲주 145)의 글, 1997, 61~63쪽. ㉑주 129)의 글, 2002, 219쪽.

2) 사회구조

(1) 독로국 국읍의 지리적 특징

삼한 시기 독로국의 경역이었던 지금의 부산 동래 및 당감동과 기장군은 신라 통일 이후 그 영속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신라 때의 동래군은 영현으로 동평현과 기장현을 두었는데, 고려 현종 9년에는 동래군과 기장현은 울주에, 동평현은 양주에 각각 속하게 된다. 이후 동래군은 숙종 연간에 다시 독립된 군으로 승격되어 동평현과 기장현을 그 관할 아래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⁰⁾

이 같은 영속 관계의 추이를 통해 볼 때, 신라 편입 이전의 동래 및 당감동·기장군 지역은 인근의 금주·양주·울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단위정치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래는 금주와는 정치적으로 영속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라 통일 이후에는 당시 낙동강이 지역적·정치적으로 커다란 경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후술할 바와 같이 삼한·삼국시대에 부산과 김해가 정치·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삼한시대의 독로국은 온천천·거제천·원효천이 합류하여 수영만으로 흐르는 동래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치소로서 ‘국읍’의 위치는 어디일까? 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한 현재의 동래구 일대가 주목되는데, 온천천이 관통하면서 금정산을 배경으로 수영강 좌우로는 장산과 배산·황령산이 위치하고 있다. 온천천은 ‘서천’ 또는 ‘동래천’이라고도 하였는데, 금정산의 고당봉·계명봉에서 발원하여 금정구와 동래구를 관류하여 거제천 등 작은 지류를 합류시켜 안락동 수

130) 鄭容淑, 앞 글, 1995, 258쪽. 한편 현종 12년의 성지 개축기사에서 ‘東萊郡城’이라고 한 점과 정향의 묘지명에 ‘郡戶長’이라고 한 점을 들어 이 지역 사람들은 군현의 승강에 관계없이 신라 때의 지명을 그대로 썼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鄭容淑,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와 부산」 『釜山市史』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535쪽).

영하수처리장 부근에서 수영강으로 흘러 바다로 나간다. 내륙 쪽으로는 큰산이 막혀 있는 등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온천천과 수영강 지류를 통해 양산·울산·기장 등과 통하고, 북쪽 금정산의 만덕고개를 넘으면 구포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서남쪽으로는 당감동을 지나 개금고개를 넘으면 낙동강 하류와 연결된다.

온천천 수계가 부산지역의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삼한·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청동기 시대 후기 들어 이 곳을 중심으로 분묘 유적이 집중되고, 복천동 내성 유적과 온천동 유적에서 일본의 야요이식 토기가 출토¹³¹⁾되는 점으로 볼 때 이 때부터 온천천 수계가 부산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는 낙동강 하류와 비교해 볼 때, 총적토도 적고 대부분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사방으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영강은 총 유로 연장이 20km, 유역면적은 199.3km²로서¹³²⁾ 부산지역에서는 낙동강 다음으로 유로가 가장 길고 지류도 많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결절지를 중심으로 교통과 경제활동의 근거지로 삼기에는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삼한 시기의 신앙·생활환경·농업생산력을 밝힐 수 있는 환호·취락지·경작지·제사 등의 유적이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구릉지에 가까운 평지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이는 내성주거지의 경우 삼한 전기에 단조철기 등 철기의 본격적인 자체 생산으로 가경지가 확대되면서 취락의 입지가 구릉에서 평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¹³³⁾ 울산 옥현 유적 등의 구릉형 취락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주거지 아래 구릉과 접하는 평지에 경작지가 만들어지고 계곡의 물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³⁴⁾

131) 申敬澈, 앞 글, 1984, 29쪽.

132) 郭鍾喆, 「先史·古代 稻 資料 出土遺蹟의 土地條件과 稻作·生業」『古文化』 42·43,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93, 67쪽.

133) 安在皓·洪潛植, 앞 글, 1998, 165쪽.

청동기시대부터 이 같은 농업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이후 철기문화가 보급·확산됨에 따라 삼한시기에 이르러서는 온천천 수계의 동래 일대를 중심으로 독로국 성장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3세기말 이후 등장하는 복천동 고분군 피장자 집단은 바로 앞 시기에 동래 패총을 남긴 정치집단 및 복산동 고분군 조영집단과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삼한·삼국시대의 고분의 위치와 생활 근거지가 거의 같은 범위 내에 있었음을 고려해 보면 구릉 상의 고분군 피장자 집단과 평지의 온천천변의 동래패총 집단이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 유적이 위치한 수안동·낙민동·복천동·칠산동·명륜동 등 조선시대의 동래 읍내가 독로국의 치소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삼한 시대 부산의 대표적인 생활 유적인 동래 패총은 사적 제192호로서, 옛 동래부의 읍내면 지역인 낙민동에 소재하고 있다. 원래는 樂民洞과 壽安洞에 걸치는 낮은 구릉지대의 서남 경사면 일대와 저습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소멸되고 220평만 보존되어 있다. 낙민동에는 ‘조개무지마을’이 전하고 있어,¹³⁵⁾ 이 유적은 오래 전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바로 앞에는 온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수영만 해안선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지점이다.

낙민동은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늪지대로서, 미나리밭과 연밭이 많았다. 또한 인근의 세병교와 연안교 사이의 저지대는 ‘고래뜰’로 불렸는데, 도시화가 되기 전에 동해안에 서식하는 돌고래가 밀물 때 수영강 하구를 거쳐 이 곳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¹³⁶⁾ 이로써 추정해 보면, 고대 시기 온천천은 하상의 폭이 지금 보다는 훨씬 넓었고 바닷물도 이곳까지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해수성의 동래패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지형 조건에 연유한 것으

134) 서영남, 앞 글, 2001, 317~319쪽.

135)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地名總攬』2, 1996, 213쪽.

136) 윗 책, 209~210쪽.

로 생각되는데, 유적 맞은 편의 온천천과 거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남쪽 저지대 빨층 아래에서 河海混成 沖積土인 灰色土가 확인되는 등 삼한시대 당시 이 패총의 바로 밑까지 바다였거나 潮汐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³⁷⁾

수안동은 낙민동과 인접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동래부사가 집무하던 동현이 위치하는 등 사실상 전근대 시기 동래의 중심지였다. ‘수안’이라는 명칭의 유래 가운데 가장 ‘옴뚝되는 관아의 안’이라는 설과 동래성 수문 안의 동네라는 설¹³⁸⁾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곳은 낙민동과 함께 수영만으로 직접 통하는데, 육로도도 사방으로 통하기가 쉬운 교통의 중심지였다. 즉 남쪽과 서쪽으로는 각각 해운대 및 서면과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수영강 상류의 지류를 따라 기장과 연결되고, 북서쪽으로는 온천천을 가로질러 나지막한 고개인 馬飛岨를 넘으면 당감동과 통한다.¹³⁹⁾ 연지동의 북방과 서방 성지곡으로 변한 언덕 산에는 일제 때만 하더라도 옛 성터와 고분군이 있었는데, 성지곡은 옛날 양산으로 통하는 중요한 관소로서 이 통로에는 ‘찬물샘’(=‘냉천’)이 있었다고 한다.¹⁴⁰⁾ 따라서 이 곳은 옛날 동래부 치소에서 동평현 혹은 양산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한시대 동래지역은 온천천 수계의 수안동, 낙민동, 명륜동, 복천동, 칠산동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독로국의 ‘국읍’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후대 사서이기는 하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동래 邑城 내에 6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하는데,¹⁴¹⁾ 우물이 위치한 곳이 거주지역(=읍락·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삼한 시대 독

137) 郭鍾喆, 앞 글, 1993, 69쪽;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앞 책, 1997, 1~7쪽.

138)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앞 책, 1996, 213쪽.

139) 『東萊府地圖』(1872)에는 廣濟橋에서 馬飛縣으로 넘어가는 곳에 ‘居伐’이라는 곳이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의 거제동에 해당한다.

140)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앞 책, 1996, 165~166쪽.

141)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城郭條.

로국의 ‘국읍’도 바로 6개의 촌을 중심으로 읍락을 형성하였을 것이다.¹⁴²⁾ 즉 독로국은 ‘수영만’ 배후의 온천천 수계의 동래패총과 복산동 고분군 조영 집단을 중심세력으로 하여 주변의 구서동유적과 노포동고분군 조영 집단의 읍락·촌을 잇는 등 방사선식 구조로 ‘국읍’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비록 삼국시대의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복천동고분군의 위치가 수영강과 온천천이 합류하는 역내의 결절지로서 교통의 요지라는 점,¹⁴³⁾ 조도 패총·내성유적·온천동 수습토기에서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된다는 점, 기원전 2세기 후반에 단조철기를 생산하는 선진적인 지역이라는 점(동래 복천동 내성 주거지),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왜계 유물의 물자유통권이 형성된다는 지적¹⁴⁴⁾ 등은 삼한시대 철과 대외 교역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온천천 수계의 독로국 ‘국읍’으로서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

(2) 독로국의 경역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전하는 ‘국’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독자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본 단위의 반경이 2.5~5km, 소국의 평균 반경은 15~20km로 추정되고 있다. ‘국’이 국읍·읍락·촌 등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혹은 단독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국’에는 국읍을 포함하여 평

142) ‘福泉洞’이라는 지명도 이 우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釜山市史編纂委員會, 앞 책, 1996, 243쪽), 『東萊府誌』(1740) 「各面各呈遠近程道」條에는 邑內面 西部에 玉味井洞·大井洞·野井洞 등 우물과 관련된 지명이 전하고 있다. 한편 대구 時至地區 취락지 발굴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우물이 배치되고 그 주위에 각종 가옥이 들어선 것을 근거로, 복수의 주거 단위가 하나의 우물을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權五榮, 「三國時代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 『三韓의 社會와 文化』, 韓國古代史研究10, 韓國古代史研究會, 1995, 24쪽).

143) 郭鍾喆, 앞 글, 1993, 69쪽.

144) 朴天秀, 「三韓時代 東萊·釜山地域 集團과 對倭交涉」 『가야사 복원을 위한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제1회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1997, 64~66쪽.

군 10여 개의 읍락과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다수의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국이나 소국이나에 따라 읍락의 수나 국의 범위도 차이가 났을 것인데, 대국의 경우 최대 7~8개의 소국을 합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⁵⁾ 독로국은 구야국과 안야국과는 달리 대국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평균적인 ‘국’의 규모로 보더라도 그 경역은 온천천 수계의 국읍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따라 사방 제 지역의 읍락·촌 등 지금의 부산 지역 대부분을 포괄하였을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영만 외곽 해안의 교통로에 위치한 조도패총과 다대포패총 집단의 읍락·촌도 국읍의 관할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독로국의 경역의 추정에는 삼국시대의 부산 지역의 고분군 분포가 참고된다.

삼국시대의 부산지역에는 28여 개의 고분군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주요 고분군은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에 위치하고 소형분도 대개 이들 하천의 지류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¹⁴⁶⁾ 입지조건으로 볼 때 소형분들이 위치한 곳에는 삼한시대 이래 개별 읍락·촌들이 존재하면서, ‘국읍’인 동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4~5세기대의 복천동고분군 피장자 집단은 국읍의 지배자로서 화명동고분군·당감동고분군·오륜대 고분군·반여동고분군¹⁴⁷⁾·두구동 고분군·기장 청강리고분군¹⁴⁸⁾ 조영집단의 읍락·촌을 관할 아래에 두었을 것

145) 白承忠, 앞 글, 1995, 207쪽. 한편 삼한·삼국시대의 취락지와 분묘 유적의 분포를 통해 읍락의 규모(반경 3.5~6.5km)를 추정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熙濤, 앞 글, 2000, 122~130쪽 참조.

146) 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앞 책, 1999, 12~15쪽.

147) 화명동고분군은 4~5세기 전엽의 초기 수혈식석곽묘의 원류를 보여주고 있고, 당감동고분군과 오륜대 고분군은 5세기 후반 황구식석실묘가 도입되기 이전의 수혈식석곽묘이다(釜山市立博物館福川分館, 앞 책, 1999, 35~45쪽, 63~76쪽).

148) 기장군에도 소국이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한 12국 가운데 특별히 이 곳에 비정할 만한 국명이 없고, 지금까지는 대형 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래 기장군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신석기시대 이래 총 50여 곳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나, 삼한시대의 유적으로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의 鼎冠

이다.¹⁴⁹⁾ 5세기 말~6세기 전반대가 되면 연산동고분군 지역이 새롭게 ‘국읍’으로 등장하는데, 주변의 소형 석곽묘 집단인 두구동 임석 고분군·덕천동 고분군·해운대 좌동 고분군·초장동 고분군·노포동 작장고분군·선동 신천고분군¹⁵⁰⁾ 조영집단의 읍락·촌을 그 관할 아래에 두었을 것이다. 이후 부산에서는 대형분의 조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부산이 신라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 군현 편입 당시의 동태를 중심으로 한 영속관계는 ‘거칠산국’ 때의 국읍과 읍락·촌 사이의 형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편제하였을 것이다.

(3)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촌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촌 상호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삼한 전체로 본다면, 국에는 別邑과 제사장인 天君이 따로 존재하는 속에서, 國邑에는 비록 主帥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기 때문에 지배자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국이 촌-읍락-국읍 등 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읍락은 산과 바다를 경계로 공동경제권을 이루면서 별도의 山谷에 거주하는 등 상당한 독자성을 가졌음을 감안해 보면 일면 당연한 해석이

面 佳洞 분묘유적 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4~6세기의 삼국시대 유적이다. 특히 淸江里 분묘유적에서 채집된 肩部가 강조된 古式의 圓底長頸壺의 기형적 특징은 복천동 31·32호분 출토품과 같은 계통으로 추정되어 삼국시대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상징할 수 있다(釜山大學校博物館·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8, 45쪽, 86~94쪽, 109~110쪽).

149) 고분군의 위계를 통하여 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은 수장층의 주거공간으로, 주위의 내성 고분군·화명동·괴정동 고분군 지역은 일반성원의 주거공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파악하기도 한다(홍보식, 앞 글, 2000, 22쪽). 이것을 삼국시대의 국읍과 읍락·촌과의 관계로 유추해보면, 수장층 주거공간은 국읍으로, 일반성원 주거공간은 읍락·촌으로 각각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혈식석곽의 하단에 넷돌을 세워 쌓는 방식 예가 보이는 반여동·오륜대·두구동 유적은 남북으로 2km 이내에 위치하는데, 수영강 수계 집단과의 관계 규명에 참고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앞 책, 1999, 43쪽).

150) 釜山市立博物館福川分館, 앞 책, 1999, 113~146쪽.

라고 하겠다.¹⁵¹⁾

그러나 읍락이 잡거하는 것이 주수의 권력 행사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는 잡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수는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재까지로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濊의 不耐侯가 濊王으로 봉해져 읍락과 잡거하도록 강제되었다는 기록¹⁵²⁾을 참고해 볼 때, 읍락이 잡거하여 주수가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과연 삼한 전체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국읍의 주수도 크게 보면 일반 읍락의 범주 속의 대표 읍락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일반 읍락에 직접적인 지배권력을 관철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수는 ‘국읍’의 지배자인 동시에 국 전체를 대표하여 통할하는 渠帥로서의 역할도 있음을 감안해 보면, 읍락·촌에 대하여 군사권·제사권·공동 시설(수로관개시설 등)의 축조와 이용권·물자 집산과 분배권(철·소금·목재 등)·대외교역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권은 가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¹⁵³⁾

예를 들면 대외교역의 경우 그 성격상 대표성을 띤 구심체가 필요한

151) ‘읍락’은 당대의 사서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용어 사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를 구성하는 하위 단위로서는 ‘촌(락)’이 있고 ‘읍락’을 구성하지 못한 채 ‘촌(락)’으로만 산재해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읍락·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 개별 읍락들은 『삼국지』『위서』 동이전 예조에 전하는 바 ‘山川各有部分’이나 ‘同姓不婚’과 같이 산과 강을 경계로 한 공동경제권과 공동생활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묘군의 분포를 중심으로 삼한 읍락의 구조 및 소국의 취락 분포 정형을 논하면서, 삼한 읍락은 몇 개의 취락군 즉 촌락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소국을 이루는 小村-村-大村(邑落 중심지)-大村(國邑 중심지)의 상호관계를 밝힌 논고도 있어 주목된다(李熙濬, 앞 글, 2000, 126~130쪽). 일단은 규모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읍의 경우 목책이든 토성이든 ‘城’의 존재 유무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2) 『三國志』권30, 「魏書」東夷傳 濊條, “正始六年…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封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153) ‘國邑’의 기능과 관련된 고고 자료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權五榮, 앞 글, 1996, 102~130쪽 참조.

데, ‘국읍’은 물자 집산과 교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주수’는 그 전 과정을 통할했을 것이다. 읍락·촌이 독자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이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읍’에 적극 협조하여 ‘국’ 차원의 운동력을 높였을 것이다. 즉 ‘국읍’의 ‘주수’는 대외교역 과정에서 소속 읍락·촌으로부터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물자 집산과 생산·화폐 사용·시장 통제·교통로의 사용 등에 있어 읍락·촌으로부터 각종 협력을 이끌어내었을 것이다. 대신 주수는 읍락·촌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대외교역을 통해 얻어진 각종 이익과 선진기술 및 동경·장신구 등 위신재 등을 공동분배의 형식을 통해 최대한 보장하였을 것이다.¹⁵⁴⁾ 국 혹은 국읍 차원에서 준비한 연례행사인 ‘國中大會’는 국읍과 읍락·촌 사이의 이 같은 상호관계를 ‘국’ 차원에서 농축하여 하나로 묶는 확인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도 대체로 이러한 내부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즉 동래패총과 복산동고분군 피장자 집단은 국읍의 중심세력으로서 온천천 수계의 각 읍락·촌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었을 것이며, 이외의 수영강 수계·당감동·화명동·괴정동 지역과 해안의 읍락·촌도 별도의 공동경제권을 가지면서 국읍의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국읍과 읍락·촌을 연동시킨 계기는 철기 사용의 확대, 농업생산력의 증가, 대외교역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3자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변한에서 土地가 비옥하여 五穀과 稻가 잘된다고 전하는 바와 같이, 독로국도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의 배후 저습지를 중심으로 가경지를 확대하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고, 온천천과 수영강 수계를 중심으로 ‘철’을 중심으로 물자의 집산과 분배의 중심인 ‘국내 시장’과 ‘대외교역’을 활성화시켰을 것이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왜는 邪馬臺國王 ‘卑彌呼’의 통제 아래 국내에는 나라마다 시장이 있어 물자를 교환하는데 이를 감

154) ‘國邑’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歷史學報』, 1976, 22쪽; 앞 책, 1984, 147쪽 참조.

독하는 ‘大倭’를 두고 대외교역의 감독과 관리 업무는 伊都國의 ‘一大率’에게 맡겼다고 하는데,¹⁵⁵⁾ 독로국의 국내시장이나 대외교역 양상도 비슷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한편 독로국의 읍락·촌의 독자성 내지는 국읍의 한계성을 지적한 논고도 있다. 즉 3세기 후반대의 노포동 고분군 피장자 집단은 하위집단이면서도 다량의 철제 무기와 특수무기인 환두대도를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아직까지는 국 차원의 군사조직이나 읍락간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¹⁵⁶⁾ 하나의 사례 분석이기는 하지만, 4세기대와는 달리 하위집단이면서도 다량의 무기 소유가 가능했던 점을 볼 때 일반 읍락·촌의 독자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물론 노포동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해안·하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의 요충지이고, 『삼국지』에서 언급한 바 ‘弁·辰韓 雜居’의 복합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등 주변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독자성이 강한 정치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한시대 당시의 국 차원의 군사조직이나 읍락에 대한 통제 방식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데, 노포동 고분군 집단은 기본적으로는 개별 읍락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유사시에는 전사집단으로서 ‘국읍’과 협력하여 국 차원의 군사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마치 ‘주수’ 아래 의제화된 존재인 ‘천군’이 ‘별읍’을 중심으로 제천행사 등 ‘국’의 제사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하겠다. 군사권·제의권 모두 왕 아래에 두면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가서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노포동 고분군 집단의 군사적 성격은 읍락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외교역권 등 국읍의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주수’가 주도한 ‘국’ 혹

155) 『三國志』권30, 「魏書」東夷傳 倭人條, “國國有市 交易有無 使大倭監之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常治伊都國 於國中有如刺史.”

156) 홍보식, 앞 글, 2000, 23쪽.

은 ‘국읍’ 차원의 군사 운용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독로국과 구야국의 관계

변한 12국 가운데 중심 세력은 ‘대국’인 김해 구야국과 함안 안야국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들 국이 변한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농업생산력의 증대 및 철을 중심으로 한 한군현·예·한·왜 등과의 대외교섭활동이 용이했던 지리적 입지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독로국은 비록 ‘대국’은 아니지만 위의 두 국과 마찬가지로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철 생산과 유통 및 활발한 대외교섭활동을 통해 ‘국’으로의 위상을 높였을 것이다.

3세기말~4세기대가 되면 부산 동래는 복천동 고분군 집단이 성장하고, 인근의 김해에서는 양동리 고분군 집단에 이어 대성동 고분군 집단이 유력한 정치체로 등장한다. 구야국에서의 세력의 교체를 한군현과 북부 큐슈를 잇는 교역체계의 와해에서 찾기도 하는데,¹⁵⁷⁾ 사서상으로도 교역체계의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현의 쇠퇴는 2세기 후반 桓靈之末의 韓·濊 强盛 이후 3세기 후반 西晉과의 통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진행되기 때문에 유독 3세기 말이라는 한정된 시기만을 중시할 이유는 없고, 또한 교역 주체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군현과의 단절로 인해 변한과 북부 큐슈 양자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삼한시대의 독로국은 풍부한 철자원과 대외교역상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한군현과는 물론 왜의 北部九州와 山陰 등 주변의 여러 지역과 왕성한 대외교류활동을 전개하였음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교역항으로서의 중심지는 부산의 독로국이 아니라 김해의 조만천 수계에 자리잡고 있는 구야국의 중심 세력인 양

157) 홍보식, 앞 글, 2000, 42쪽.

동리 고분군 집단이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증거로 복산동 고분군의 2세기 후반 목곽묘 5기 가운데 1등급 분묘(5호·12호)가 양동리 고분군의 2등급 분묘와 비슷하여 유물의 질적·양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든지, 복산동 고분군에서는 양동리 고분군의 1등급인 162호분에 비견할 만한 분묘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¹⁵⁸⁾ 3세기 당시 김해의 구야국이 '대국'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물에 보이는 이 같은 위계상의 차이가 삼한-삼국시대의 '지역연맹체'라는 보다 큰 정치적 범주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로국과 구야국 사이에는 낙동강이라는 큰 강과 하안선을 따라 발달해 있는 산맥 등 자연적 경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즉 금정산에서 송학산의 남서 방향으로 부산을 동서로 구분하는 금정산맥이 낙동강과 나란히 뻗어 있는데,¹⁵⁹⁾ 비록 만덕고개·개금고개·대티고개 등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적 장애물로서 기능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고 자료로 볼 때 부산 동래와 김해는 이 같은 장애물에 구애됨이 없이 삼한시대부터 동질성을 보이는데, 입지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두 지역의 교류는 아마 육로보다는 낙동강 하류와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과 김해의 문화적 동질성은 2세기 후반 동래 복산동 5호분과 양동리 162호분에서 출토된 대부광구호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도질토기가 출현하는 3세기 후반부터는 주변의 경주-울산과 창원-함안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산과 김해만의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한다.¹⁶⁰⁾ 이후 4세기 후반~5세기 초가 되면 김해·부산을 중심으로 '外折口緣高杯'가 한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물은 이들 지역의 공동물품으로서 철마 고촌리·진해 웅천·창원 가음정동·도계동까지 확대되는 등 '전기가야

158) 홍보식, 앞 글, 2000, 6쪽.

159) 吳建煥, 「地勢」『釜山市史』1,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89, 48~49쪽.

160) 홍보식, 앞 글, 2000, 29~30쪽.

연맹'의 최대 판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把手附爐形土器' 분포 지역은 '전기가야연맹'의 중심권이고, '筒形銅器' 분포 지역은 핵심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부산과 김해에서만 출토된 '통형동기'는 가야국에서 제작하여 독로국에 사여한 물품으로, 가야국의 대성동 집단이 맹주가 되어 독로국의 복천동 집단을 간섭·통제하는 연맹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¹⁶¹⁾

고고 자료의 추이를 통해 삼한·삼국시대 부산과 김해의 동질성을 검토한 것인데, 소위 부산·김해권(식)에 보이는 문화적 현상을 정치적 상관관계로 연결 지어 해석한 것이다. 물론 두 지역에는 별개의 '국'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인데, 두 지역이 문화적 동질성을 보인다는 점은 정치적 관계로까지 이어져 향후 보다 큰 정치 단위체로 발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출토되는 외절구연고배·과수부노형 토기·통형동기 분포권을 중심으로 '전기가야연맹'의 판도와 핵심 세력을 규정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기가야연맹'이라는 범주는 가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만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범주 설정과 용어 사용에 문제점이 보인다. 이것은 같은 시기 대국인 안야국도 함안 분지와 군북·의령·칠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¹⁶²⁾ 안야국의 권역을 살피는 데에는 함안의 특징적인 토기로서 창원·진양·의령·진북까지 출토되고 있는 '火焰形透窓高杯'의 분포¹⁶³⁾가 참고된다. 따라서 삼한·삼국시대의 낙동강하류지역은 창원과 마산을 기준으로 이동은 부산·

161) 申敬澈, 앞 글, 1995, 24~26쪽; 홍보식, 앞 글, 1998, 193~196쪽; 앞 글, 2000, 35~36쪽.

162) 金亨坤, 「阿羅伽耶의 形成過程 研究-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加羅文化』12,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5, 53쪽.

163) 南在祐, 「安羅國의 成長과 對外關係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8, 138쪽.

김해권으로, 이서는 함안권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세기 후반 이후에도 낙동강하류지역에는 ‘전기가야연맹’과 같이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의 연맹체의 존재는 상정하기가 힘들고, 대신 두 지역 모두 대국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각각의 ‘지역연맹체’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¹⁶⁴⁾ 특히 부산의 경우 삼한 시기에는 독자적인 ‘국’으로 발전하다가 3세기 후반 이후에는 김해를 중심의 ‘지역연맹체’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것인데, 4세기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산과 김해의 대표적인 고분군인 복천동고분군과 대성동고분의 조영과 추이 및 고구려 남정을 참고해 볼 때, 독로국은 적어도 5세기대에는 김해 지역연맹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향후 신라와 정치·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전개한다.

이상에서 독로국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삼한시대 부산의 중요 유적은 모두 온천천 수계에 집중되는데, 독로국의 치소인 국읍은 동래패총과 복산동·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한 곳에 있고 그 경역은 당감동과 기장군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촌과의 관계는 삼한의 그것과 동일한 양상을 띠는데, 군사권·제사권·공동시설의 축조와 이용·물자의 집산과 분배·대외교역권 등 국 전체 차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읍은 읍락·촌의 협조 아래 기본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특히 독로국의 국읍은 ‘대내외 교역’상의 유리한 입지조건인 온천천 수계의 결절지에 위치하면서 철의 생산·집산·분배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읍락·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한편 독로국은 정치적으로는 김해 중심의 ‘지역연맹체’에 속했는데, 5세기 이후 일시 독자적인 발전을 피하기도 하지만 곧 신라로 편입되고 만다.

164) 白承忠, 앞 글, 1995, 217쪽; 「加耶의 地域聯盟史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24~30쪽.

VI. 맺음말

이상에서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인 독로국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는 진한 위주로 기술된 까닭에 변한의 출자와 변·진한의 분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추정해보면, 변한은 진한과 같은 갈래로서 그 성립은 진 피역인의 남하 이래 위만조선의 멸망에 이르는 일련의 유이민 집단의 남하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삼한 시기 동안 변·진한은 비록 문화적·경제적으로는 동질성을 보이지만, ‘염사치 설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군현과의 접촉을 계기로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대외적으로는 분화되었다. 이것이 3세기 후반 서진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적으로도 별개로 구분되기 시작하는데, 변한 12국의 하나인 독로국은 대국인 김해의 구야국의 주도하는 ‘공동제의권’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둘째, 독로국의 지명비정인데, 다대포설·거제도설·부산 동래설을 검토하였다. 다대포설의 경우, 다대포는 입지조건으로 볼 때 삼국시대에는 군사상·교통상의 요충지임은 분명하지만 삼한시대에는 독자적인 국으로 비정할 만한 조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거제도설은 ‘두루·도루·독로-상’과 통하여 음상사로는 가장 타당한데, 그러나 ‘치마’를 뜻하는 ‘裳’은 ‘독로’와는 무관하게 문무왕대에 처음으로 붙여진 것으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제군의 지형을 본 딴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입지조건, 삼한시대의 유적 분포, 그리고 음차·훈차로 철생산과 관련이 깊은 ‘독로’ 국명과 철생산 유구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온천천과 수영만을 끼고 있고 옛 동래부의 치소가 있었던 지

금의 부산 동래 복산동·명륜동·수안동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동래 지역의 고명인 거칠산군·장산군·래산군은 음차 혹은 혼차로 ‘거칠산(=황령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동래’·‘봉래’·‘내산’은 미칭으로 모두 중국 산둥반도 북부의 지명에서 따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 경덕왕대에 ‘거칠산군’을 개명한 ‘동래군’은 ‘독로국’의 ‘독로’에서 일부 음차하고 ‘거칠산군’의 ‘거칠’에서 일부 혼차한 지명이고, 그 영현인 동평현과 기장현은 각각 ‘새로운 땅’과 옛말 ‘가바라’에 대한 음차-혼차-보충적 음차로 생겨난 말이다. 한편 독로국의 원래의 치소는 지금의 동래 명륜동 일대인데, 신라가 이 지역의 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복천동 고분군 조영집단 대신 새롭게 연산동 고분군 조영집단이 등장하면서 치소를 배산 방면으로 옮긴 것이다. 이후 경덕왕대에 군현명을 바꾸어 거칠산군 대신 ‘동래군’으로 부르는데, 이 때 치소를 다시 명륜동 일대로 옮기면서 수영강을 기준으로 ‘새로운 거칠산군(=내산군)’ 혹은 ‘동쪽의 거칠산군’의 뜻으로 붙여진 것이다.

넷째, 삼한시대 부산의 중요 유적은 모두 강안이나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조도 패총을 제외하고는 온천천 수계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온천천 및 수영강 수계는 비교적 유로가 길고 지류도 많아 사람들의 공동생활권의 중심지로 삼기에는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유적에서는 이른 시기 철기생산과 활발한 대외관계를 전개하였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관문으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대외교역’을 삼한 시기 독로국의 사회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독로국의 치소인 국읍은 동래패총과 복산동·복천동 고분군이 위치한 곳에 있었고, 국읍 및 복수의 일반 읍락·촌으로 구성된 그 영역은 삼국시대 때 동래군과 영속관계로 나오는 당감동과 기장군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섯째, 독로국의 국읍과 읍락·촌과의 관계는 삼한의 그것과 동일한 양상을 띠었을 것인데, 군사권·제사권·공동시설의 축조와 이용·물자의 집산과 분배·대외교역권 등 국 전체 차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읍은 읍락·촌의 협조 아래 기본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특히 독로국의 국읍은 ‘대내외 교역’상의 유리한 입지조건인 온천천 수계의 결절지에 위치하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인데, 철의 생산·집산·분배에 있어 국읍의 주수는 시장을 개설하고 화폐를 유통시키고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읍락·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여섯째, 한편 독로국은 삼한 시기 동안 ‘대외교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지만, 인근의 대국인 김해 구야국과는 이른 시기부터 정치적·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두 국은 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유사한 지리 조건을 바탕으로 북방과 왜와의 교류관계를 전개하는데, 낙동강과 금정산맥이라는 자연적 경계가 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하류와 해로를 통해 상호간의 정치적·문화적 동질성을 쌓아갔다. 즉 삼한 시기 변환은 크게 볼 때 대국인 구야국과 안야국으로 대별되는데, 독로국은 4세기 후반 이후 김해 중심의 ‘지역연맹체’에 속하게 된다. 5세기 이후가 되면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독자성을 가지면서 발전하지만, 신라의 이 지역 진출로 인해 연산동 고분군이 조영되면서부터는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신라로 편입된다.